

## 호산나복음화대회 교계연합 기대 속 성료

역대 최다인원 참석 미국 위한 간절한 기도...한기홍 목사 설교 은혜 충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준 목사) 주최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진행된 뉴저지 2015 호산나복음화대회가 역대 최다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31일 마지막날 집회는 보조의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서 큰 성황을 이뤘다. 이에 올해 호산나대회는 뉴저지 교회들의 열정과 저력을 확인한 대회로 평가되고 있다. 참석자들의 호응과 강사 목회자의 준비된 설교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진행된 뉴욕 할렐루야대회도 그동안 겪었던 대회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뉴욕교계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뉴저지 지역 또한 이번 호산나복음화대회를 통해 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들의 동시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31일 마지막날 집회에서는 비전선언문이 발표됐다. 뉴저지교협은 매년 호산나대회 때마다 비전선언



2015 뉴저지 호산나복음화대회에서 참석한 성도들이 미국을 위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문을 채택해 왔다. 올해 비전선언문은 “비신앙적이며 세속적인 흐름과 가치관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면서 채택 배경을 밝혔다.

선언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믿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 △



한기홍 목사

신구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본주의적 어떤 해석도 배격한다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무리들이 예배와 친교와 봉사하고 선교를 목적으로 모인 신앙적 공동체를 믿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 연방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 이민 교계 거목 박영창 목사 소천



남加州 한인 이민 교계 역사의 산증인이며 독립 운동가인 월광 박영창 목사(사진)가 7월 28일 오후 8시 자택에서 소천했다. 장례는 8월 5일 할리우드 포레스트론에서 송정명 목사의 집례로 엄수됐다.故 박 목사는 1915년 5월 28일 평안북도 영변 출생으로 향년 100세다. 그의 아버지는 신사참배 반대와 항일 운동으로 순교한 故 박관준 장로다.

故 박 목사는 1969년 도미, 엘에이에서 대한남주교회를 창립했으며 남주교협 회장, 남주원로목사회 회장, 민주평통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자녀는 슬하에 1남 3녀를 뒀다. 아들 박영남 목사는 새소망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 “임현수 목사 송환 촉구 한 목소리”

성시화운동 · 공공정책 · 성명서 발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가 3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한 목사)와 함께 ‘임현수 목사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 임 목사 송환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가 6개월 만인 지난 7월 30일 평양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며 “임 목사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난 20년 동안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활동에 헌신해 왔던 그의

기자회견 내용을 접하고 큰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인론회 등 한국 기독교 연합기관과 교단,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북한 당국에 임현수 목사의 목사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은 역사적인 해로, 그동안 경색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풀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

어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임현수 목사의 기자회견 소식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북한은 임현수 목사를 조건 없이 송환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캐나다 연방정부를 향해서도 “임현수 목사의 무사 송환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한국교회는 굶주리는 북한 동포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계속 진행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웅 기자

## “주일예배 참석자 세계 1위”

서울 82만 5천명 압도적

종교 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하트포드 연구소(HIRR)과 기독교 비영리재단 리더십네트워크(LN)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서울이 ‘메가처치’ 10대 도시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일 예배 참석자는 82만 5000명으로, 평균 48만명이 예배를 드리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등 메가처치가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2위는 2위인 나이저리아 라고스 34만6500명이었고, 3위는 미국 휴스턴 21만 1936명이었다. 우리나라 경기도 안양도 7만 5000명으로 7위를 기록했다.

한편 메가처치 수가 많은 곳은 휴스턴으로, 38곳이 이 도시에 있었다. 이어 미국 댈러스가 19곳으로 2위, 우리나라 서울은 17곳으로 3위를 기록했다. ‘메가처치’ 개념은 주일 예배 참석자 수가 2000명이 넘는 교회를 의미한다.

>>4면 인터뷰 ‘지저스키즈’ 대표 임은희 전도사  
 >>15면 오피니언 칼럼 ‘왜 미국교회들은 동성애를 허용할까?’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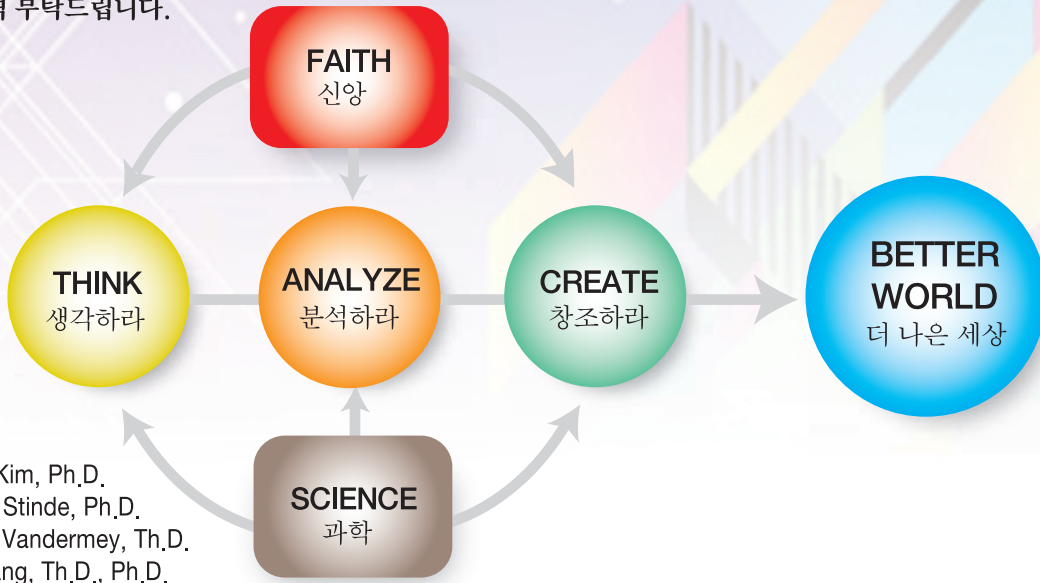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 피드몬트 대학교 학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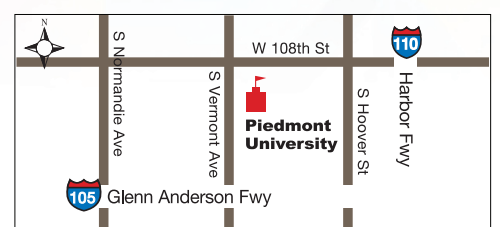
피드몬트 대학교는 글로벌 지식정보시대에 기독교 인재양성목적을 지향하는 기독교 정규종합대학교입니다.

피드몬트 대학교는 정규 종합대학교로서 학문은 **통전, 통합, 통섭의 융합학문(Consilience, 'A jumping together knowledge')**을 추구합니다. 많은 지원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Dr. Casey Kim, Ph.D.  
 총장 Dr. William Stinde, Ph.D.  
 부총장 Dr. Ronald Vandermey, Th.D.  
 Chancellor Dr. Paul Kang, Th.D., Ph.D.

PU 학과별 학사.석사.박사 학생 모집(00명)	
PU 한의과대학	PU신학 대학
PU 보육대학	PU음악 대학
PU 선교대학	PU ESL
PU 교육대학	PU ACL





# 교계 연합 '광복 70주년 감사예배'

남가주교협, 미주성시화 등 연합으로 준비...8월 15일 오후 3시



광복 70주년 연합 감사예배 준비를 위해 교계 지도자들이 7월 29일 행사가 열리게 될 가든스윗호텔에서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강신권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최문환 성시화 이사장, 한기형 성시화 상임회장, 최혁 남가주교협 회장, 백지영 남가주목사회 회장, 강영창 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

남가주 교계가 연합해 광복 7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광복 70주년이 곧 분단 70주년을 의미하는 만큼 올해 행사는 예배와 함께 탈북자의 간증과 중보기도회로 진행되며 주류사회 정치인들과 한인 사회 지도자들도 초청될 예정이다. 행사는 8월 15일 오후 3시 LA 한인타운 웨스턴 길과 7가가 만나는 곳에 있는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린다. 최혁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하 남가주교협)는 "조국 광복 7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기쁨, 용서, 화해, 연합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주 한인교계와 한인사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행사를 "남가주 교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되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함께 하는 걸음"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행사는 남가주교협이 주관하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남가주 한인목사회가 공동주최하며, 남가주원로목사회, 벨리원로목사회, 샌버나디노카운티한인교회협의회, 아메리칸한인연합재단 등도 협력하는 등 여러 단체가 함께 한다. 당일 행사에서 설교하게 될 박희민 목사(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가주 교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며, 앞으로 남가주뿐 아니라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남북 통일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연합해 기도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OC 지역 교계단체들은 OC 교계 차원에서 별도의 행사가 있어 LA 지역 행사 참여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C교협과 목사회, 기독교평신도 연합회는 같은 날인 8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기로 이미 예정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가주교협 관계자들은 OC교계에서도 이번 LA 행사에 상당히 긍정적인 협력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남가주교협은 이번 예배의 헌금은 행사비를 제외한 전액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매년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 장학금'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준형 기자

# 성광장로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및 임직예배



성광장로교회 39주년 창립기념예배에서 이문걸·장영삼 집사가 명예장로로 임직했다. 이상훈 담임목사와 안수위원들이 임직자에게 안수하고 있다.

성광장로교회(담임 이상훈 목사)가 2일(주일) 창립 39주년을 맞아 감사 및 임직 예배를 드렸다.

먼저 성찬식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드린 후, 이문걸·장영삼 집사를 명예장로로 임직했으며 30년간 교회를 섬긴 최완자·조옥자 권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훈 담임목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39년 세월 곳곳마다 지켜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바로 선교에 대한 헌신이다.

이 교회는 선교 지향적 교회이다. 1976년 몇몇 한인 이민자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이 교회는 같은 해 최광수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고 정식으로 설립됐다. 초기부터 한국의 농어촌교회를 돕

고 개척하는 선교지향적 교회였다. 1981년 버몬트 길과 24가가 만나는 곳의 구 한국문화회관 건물을 구입해 임당했다. 이후에도 시각장애인 개인수술 등 의료선교, 일본·남미·인도 선교를 후원했다. 그러던 중 2004년 이상훈 목사가 4대 담임에 부임하면서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 지금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변모됐다. 파송, 후원, 협력하는 선교사가 6명이며 매년 인디언 보호구역과 남미를 향해 단기선교를 떠나고 있다. 특히 무슬림 선교에 가장 앞장서는 한인 교회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교회는 먼 선교지 외에 LA의 홈리스, 양로병원 선교를 후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섬김에도 열심인지라 연중 수차례 투표장소로도 교회를 개방하고 있으며 이웃 라티노들에게는 주차장도 개방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 "동양선교교회 창립 45주년 감사예배"

임동선 박사 비전센터 개관 및 LA경찰국과 소방국 자녀 13명에게 장학금 전달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임동선 박사 비전센터 개관을 위해 교계를 비롯한 사회 저명 인사들이 테이프를 컷팅하고 있다.(오른쪽으로부터) 박형은 목사, 송정명 목사, 임동선 박사, 박희민 목사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경찰들이 오는 게 안 좋은 일이었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즐겁고 기쁜 일로 경찰들이 오는 것은 언제든 환영한다."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담임목사의 말이다. 그동안 예배 중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심각한 교회 갈등을 겪었던 동양선교교회가 이제 아픔을 극복하고 창립 45주년을 화합과 상생으로 열었다. LA 한인타운의 산 역사라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지난달 26일 창립 4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LA 소방

국과 경찰국 소속 대원들의 자녀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와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45주년을 기념하며 이 교회는 먼저 필라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를 초청해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부흥회를 열었다. 26일 45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곧 이어 교회 설립자인 임동선 박사 기념 "임동선 박사 비전센터"도 개관했다. 기념예배에는 데이빗 류 시의원을 비롯해 LA 소방국, 경찰국의 인사들, 풀

러신학교 김세운 교수, 유재환 원서은행장 등 주류사회 및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기념 콘서트, 교회 역사 전시회로 주민들에게 교회를 활짝 열었다.

박형은 목사는 "많은 사람들과 동양선교교회의 45년 역사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번 45주년 행사를 계기로 교회 안팎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알리고 싶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해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 월드미션대 남부개혁신학대 도서관 교류 협약 체결



남부개혁신학대 LA 캠퍼스의 책임자 김희창 박사(왼쪽)과 월드미션대의 송정명 총장(오른쪽)이 양교를 대표해 협약을 맺었다.

월드미션대학교와 남부개혁신학대학교 LA 캠퍼스가 교류 협약을 맺었다. 휴스턴에 본교가 있는 남부개혁신학대는 이 협약으로 인해 LA 캠퍼스 학생들이 월드미션대의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남부개혁신학대는 지난 2014년 콩코디아국제대학교, 미주복음방송 등과

도 협약을 맺고 두 단체가 소유한 도서관을 이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한인이 설립한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ATIS인가를 받은 월드미션대는 송정명 총장과 이사진이 논의한 끝에 남부개혁신학대의 신학생 양성을 돕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월드미션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원서 모집 마감: 2015년 8월 7일(금)

신학과 • 기독교 상담학과 • 음악과 • 원격 프로그램

### 온캠퍼스 모집학과

- ▶ 학사과정**
  - 성서신학과(BABS) • 음악학과(BAM)
  - 기독교 상담학과(BACC)
- ▶ 석사과정**
  - 목회학과(M.Div.) • 신학과(MAT)
  - 음악학과(MAM) • 기독교 상담학과(MACC)
- ▶ 박사과정**
  - 목회학과(D.Min. / 유학생 I-20 발급)
- ▶ 수료증 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FCC) - 총 18학점 (6과목)
  - 유아교육 교사(ECE) - 총 15학점 (가주 자격증)
  - 유아교육 원장(ECE) - 총 18학점 (가주 자격증)
  - 기독교 상담 교실(CCC) - 매주 1회 15주 교육

### 원격 프로그램 모집학과

- ▶ 학사과정**
  - 성서신학과(BABS)
  - 기독교 상담학과(BACC)
- ▶ 석사과정**
  - 목회학과(M.Div.) • 신학과(MAT)
  - 기독교 상담학과(MACC)
- ▶ 박사과정**
  - 목회학과(D.Min.)
- ▶ 수료증 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FCC) - 총 18학점 (6과목)
  - 유아교육 교사(ECE) - 총 15학점 (가주 자격증)
  - 유아교육 원장(ECE) - 총 18학점 (가주 자격증)

### 정부 보조

- 펠 그랜트(Pell Grant)
-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 값을 필요가 없음.

### 학생 용자

- 학생 용자는 모든(학사/석사/박사) 과정에 가능
- 졸업 후 낮은 이자로 장기 분할 납부

### 장학 혜택

- 목회자, 선교사, 사모 장학금
- 본교 졸업생 대학원 진학시 특별 장학금

● 미 군목 장교 지원

● 미 주류 기독교대학(원) 편·입학

● 유학생 SEVIS I-20 발급

● 미 연방정부 학비 지원



총 장: 송정명 박사 D.Min  
설립자: 임동선 박사 Ph.D., D.Min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 TEL: 213.388.1000  
E-mail: wmuinfo@wmu.edu | Website: www.wmu.edu | FAX: 213.385.2332

### 입학문의

213.388.1000 Ext. 106  
E-mail: admissions@wmu.edu  
Website: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증기관





# “하늘 아버지 마음 품고 작은 교회들 섬겨요”

## ↓ 저 낮은 곳을 향하여(1) '지저스 키즈' 대표 임은희 전도사

자식이 다 잘 되는 것이 육신의 부모의 소원이 것처럼 독생자의 피값으로 산 모든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특별히 연약한 공동체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수십년의 사역경험과 차세대에 대한 극진한 사랑 외에는 별로 가진 것 없는 한 여전도사가 하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작은 교회들의 주일학교 교육을 돕는 일을 5년째 묵묵히 해오고 있어 교계에 청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저스 키즈'(Jesus Kidz)라는 사역단체를 세우고 어려움이 닥쳐도 민들레처럼 곳곳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임은희 전도사. 그는 2011년 이래 연 2~3차례씩 오렌지 카운티와 LA에서 '무료 주일학교 교육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지금은 다 나왔지만 뜻하지 않은 중병으로 사역현장에서 물러나고 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 빚으셨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과공부 교재를 사기 어렵거나 말씀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조차 있는 현실에 대해 그때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하니 참 안타까웠어요. 다른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서 VBS를 열어주기까지 하는데 말이예요. 많은 이들에게 작은 교회들의 자녀 신앙교육을 돕는 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나 관심 없어해 포기하려던 차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원군을 만날 수 있었지요. 찬양 DVD 제작비를 지원해 주신 장로님, 공과공부를 사 주신 프리스쿨 원장님,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 주신 전도사님 등의 도움을 받아 1년 반의 준비 끝에 사역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지저스 키즈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달에도 제12차 세미나를 갖는다. 일시 및 장소는 22일(토) 오후

## 투병생활 중 주님의 아픈 가슴 깨닫고 미자립교회 주일학교 교육 돕기 위해 5년째 LA와 OC서 연 2~3회 무료 세미나 퍼핏 설교 · 성경공부 · 찬양 등 교육

1~5시 LA 소재 기쁨의교회(3938 Wilshire Bl.)와 29일(토) 오후 1~5시 풀러튼 소재 홀리톤장로교회(511 S. Brookhurst Rd.)다. 참석자들은 수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퍼핏을 이용한 설교, 그와 관련된 성경공부, 찬양 등을 진행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특강도 듣는다. 모든 교재는 물론 울퉁 찬양 55곡의 영상을 담은 USB도 가져 제공된다. 이번에는 특별히 갈보리체플 주일학교 교재 16주치와 더불어 자녀들의 세계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창조과학에 대한 레슨 6주치를 성경공부 교재로 다룬다.

세미나에는 목사, 사모, 평신도 등이 열심히 참석,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준 비빈 주일학교 일꾼으로 무장되고 있다. 첫해부터 꾸준하게 나오는 이들도 여럿이다.

노심초사 작은 교회들을 걱정하는 임 전도사는 지난 번 행사 때는 예배 찬양을 할 때 꼭 필요한 프로젝터를 추천을 통해 3개 교회에 선사했다. 꼭 필요한 눈물로 기도해 온 며느리가 하는 지저스 키즈의 사

역을 위해 밤낮으로 무릎 꿇는 임 전도사의 시어머니가 구입비용을 기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미나를 위해 매번 만들어지는 교재는 타주와 괌, 캐나다 등 물론 일본, 캄보디아 등 선교지로도 보내져 그곳의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

“남가주를 방문하셨다가 세미나 소식을 듣고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특강 때 쓰였던 풍선과 펄프를 현지로 부친 적도 여러 번 있지요. 요청만 하면 어디든지 보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임 전도사는 지난해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사역의 동역자였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33일간 병원에 입원한 일이었다.

“그때 울며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살려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요. 남편이 쓰러진지 사흘 되던 날 잘 모르는 분에게서 카톡으로 '치유의 노래'란 찬양이 제게 배달되었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절망 중에 부르짖으며 기



“주일학교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임은희 전도사가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했던 내용이 가사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할 때도, 벼랑 끝에 나 서있을 때도 십자가로 품으신 영원한 사랑, 결코 끊을 수가 없었죠.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 되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세미나에 오셨던 분인데 성령님께서 그 노래를 주셔서 제게 닦힌 일을 모른 채 그냥 나누셨다고 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명 중 8,9명이 죽는다는 병에서 남편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재확인한 임 전도사는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고 범사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더욱 커졌다.

“지금까지 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저스 키즈의 앞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우리 세미나에 오셨던 분으로부터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져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더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었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일절 회비 등을 받지 않는 지저스 키즈는 중대형 교회들과 뜻있는 크리스천 독지가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유일하게 한국에 있는 목포성산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1981년 이래 교육전도사 사역을 해 온 임 전도사는 장신대학교와 바울라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뒤 풀러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문의 (213)422-0022  
estherlimjds@hotmail.com  
김장섭 전문위원



지저스 키즈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아트를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할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한인사회의 사랑으로 올해도 한인 학생 포함 300여 명의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새 학기 선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윤철원 박사가 남부개혁신학대학원 LA캠퍼스에서 특강을 전했다.

## “위탁가정 어린이 300명에게 책가방 선물”

한인가정상담소, 백팩드라이브 성공적 종료

8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인 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20여 명의 자원 봉사자가 책가방과 학용품 포장하려고 상담소에 왔기 때문이다. 한인사회의 사랑으로 올해도 한인 학생을 포함해 300여 명의 위탁 가정 어린이들에게 새 학기 선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7월 동안 백팩 드라이브(Backpack Drive)

를 진행했고 BBCN은행, 글로벌어린이재단, 오픈뱅크, 프리즈마 패션스쿨, 스파코, 카리스교회,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그룹 및 개인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애초 목표이던 책가방 300개와 학용품 300세트를 마련했다. 책가방 하나가 약 25달러, 학용품 한 세트가 약 25달러였기에 대략 1만5천 달러 상당의 물품이 기부된 것이다.

1일에는 글로벌어린이재단과 호프엔탈린트세어프렌즈와 개인 후원자들이 상담소를 방문해 300개의 책가방에 학용품을 넣어 포장했다. 이들이 하루 동안 정성껏 포장한, 새 학용품이 가득 든 새 책가방은 오는 8월 6일 웨스트코비나에 위치한 아동보호국의 아시아유닛에 속한 한인 어린이들과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김준형 기자

## 사도행전 ‘이야기’ 속 참교회 모습

남부개혁신학대학원에서 윤철원 박사 특강

남부개혁신학대학원 LA캠퍼스에서는 7월 28일 윤철원 박사를 초청, ‘사도행전의 교회’ 특강을 가졌다. 윤 박사는 사도행전 교회로부터 현대 교회가 배워야 할 점으로 성령의 임재, 장벽을 허물고 일치시키는 사역, 포기하지 않는 선교 등을 꼽았다.

윤 박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이며 한국신약학회 회장이다. 남부개혁신대원 객원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윤 박사는 특강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만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원대한 비전에 근거한다”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조명했다. 그는 특히 “사도행전은 내러티브 이야기들로부터 교회가 어떤 모습을 견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마술사 시몬 이야기,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베드로와 바울의 목회 사역, 바울의 여행 등은 모두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에 “현대 교회가 이런 사건들을 고찰하지 않고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거나 사역을 자를 사역자 되게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윤 박사는 사도행전의 교회상으로부터 6가지 지침을 도출해 냈다. 첫째는 성령의 임재다. 그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능력을 부여받는 사건”이라며 “교회 형성에 가장 중요한 작용점은 성령의 임재이며 교회와 성령의 임재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초대교회는 선교명령에 따라 순종했으며 한 번

도 그것에 역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둘째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다. 그는 “성령의 임재 후 교회가 감당할 사역이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함을 선사한 것”이라 설명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한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 셋째는 장벽을 허무는 사역. 넷째는 일치와 화해를 형성하는 사역이다. 그는 “교회는 연합하고 나약한 인간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늘 웃음과 축복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초대교회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 양자의 갈등을 적절하게 해소했던 베드로 등 사도들의 지혜를 예로 들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어떤 행동과 결단력이 나올 수 있는지 주목하자. 신속한 결정이 교회의 분란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다섯째는 선교하는 사역이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사건에서 윤 박사는 “교회는 선교적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라고 말했다. 마지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역이다.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바울의 모습이 좋은 예다. 윤 박사는 “폭풍 속에서도 침착히 하나님의 평화를 증언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현대 교회는 교회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도전했다. 윤 박사는 강의를 마치며 “미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성령과 함께 하며 걷길 바란다”고 권했다.

김준형 기자

## “인터콥선교회, 다민족 선교캠프 개최”



인터콥 주최 미 서부지역 다민족 선교캠프가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2015 다민족 선교캠프가 ‘시대의 표적, 예루살렘의 평화’라는 주제 아래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1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토렌스장로교회에서 인터콥선교회 주최로 열렸다. 현재 이슬

람권에 약 1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인터콥선교회(한국 이사장 강승삼 목사, 미주 이사장 송병기 목사)가 매년 여름 미국 서부와 동부에서 개최하는 다민족 선교캠프는 한인 2세 포함 다민족 기독교

인 총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이다. 집회 찬양 예배 및 메시지 강의 등 모든 진행은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로 진행되며 참가자 중 KM이 약 50%, EM 등 다민족이 약 50% 정도에 이른다.

이번 선교캠프에서는 주제 강의와 선교사 간증, 다양한 선택 강의, 선교지의 생생한 현장소식과 영적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고 미전도종족 부스가 배치돼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선교 페스티벌도 열려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도 있었다. 박희민 목사, 박성근 목사, 왕 데이빗 간사, 강요한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서 발표했다. 문소현 기자

<1면으로부터 계속>

## “호산나복음화대회 교계연합 기대 속 성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부부만이 참된 가정의 기초가 됨을 믿는다”고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분명히 취했다.

또 선언문은 “우리는 인종의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지막 날의 집회는 이의철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찬양팀 경배와 찬양, 최준

호 목사(주님의은혜교회) 기도, 문종구 장로(뉴저지참된교회) 성경봉독, 한소망교회 성가대 합창, 좋은 이웃코러스 찬양, 한기홍 목사 말씀,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헌금찬양, 이은혜 목사(순복음안디옥교회) 헌금기도, 이병준 목사(회장) 비전선언문 낭독, 이준기 목사(총무) 광고, 육민호 목사(주소원교회) 합심기도, 신의철 목사(에디슨한인장로교회 원로)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이날 뉴저지교협은 이번 대회에서 강사를 맡은 한기홍 목사와 장소를 제공해 준 필그림교회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집회 마지막 날에는 참석자들은 ‘이민교회와 한인동포들을 위해’를 기도제목으로 합심기도했다. 육민호 목사는 기도를 인도하며 뉴저지 이민교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인동포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Website: scalckc.org

**광복70주년 연합감사예배**

일시: 8월 15일 2015년 오후 3시  
장소: Garden Suites Hotel  
(681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주 관 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 상호관계의 원리

이사야 41:8-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이사야 41:8-16

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 하였다 하였노라 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14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15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라 16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 땅 끝에서부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세상 조건이나 지식, 재산의 유무나 지위, 명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가나안으로 가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을 굳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 상호관계의 원리 1: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음

상호관계라는 것은 한쪽 편에서만 상대방에게 이용가치를 기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필요로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상호관계에 대한 기대와 목적이 있었

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너는 나의 종이라'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연적인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고, 성령의 인 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면, 나라는 존재의 남은 생애는 내 주관적인 의지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 내시고, 희생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애써 가꾸어서 쓰시고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릇으로 쓰임 받는 목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강력히 나타내신 것이 '너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종(Servant)이라는 것은 남에게 얽매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전을 위하여 섬기자는 목적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 이성 자율 주의적 경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의 생각이 우선시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즐겨하고 이권야심을 위한 주관적 행세를 시도하려는 폐단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상호관계의 원리 2: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무슨 의지가 있다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상호관계의 원리를 좇아서 야곱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면서도 야곱의 원래 위치를 확인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잠언 16절 18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교훈입니다.

원래 우리는 땅 끝에서 버려졌을 때 지렁이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던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불러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호관계의 원리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본래의 처지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

데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 따라, 여러 좋은 조건으로 갖춰지고 풍성해졌는데도 원래의 형편이 지금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망각하고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결혼을 한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면서 서로의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집은 그저 하숙집처럼 되어 각자의 생활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다정다감했던 부부관계는 냉담해지면서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어 생활이 편리해졌을지는 몰라도 행복이라는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관계의 원리를 서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 상호관계의 원리 3: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쁜 습관을 고침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예전의 모습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비취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흠과 티를 발견하여 신속히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려고 애쓰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만족하실 성도의 인격과 자격을 갖추어가게 되는 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과의 상호관계를 스스로 파기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버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0-13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호관계를 신앙 인격적 자세로 잘 받들어 감당하는 신자, 늘 쓰임받기를 소원하여 헌신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열심히 충성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시고, 그를 해치는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면서 결국, 그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상호 협동하는 인연을 계속 더 깊이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듯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상호관계의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가르쳐 훈련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함께 참여해 달라는 용도사명의 기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예수님 편에서도 뜻하신 일에 힘써 줄 수 있는 참된 성도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요긴한 몫을 감당해 드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CGMA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회 총회

### 설립 취지

- 1) 본회는 이민 목회자 및 선교사를 양성하여 효율적인 선교 활동 및 지원에 힘쓰고, 분회 소속 회원들과 소속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며 함께 힘을 모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충실히 수행함에 그 목적을 둔다.
- 2) 본회는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을 설립 운영하여 이민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및 모든 교회에서 봉사할 인재를 양성한다.

일시 : 2015년 8월 18일(화) 오후 4시30분 부터~8월 20일(목) 까지

장소 : JJ그랜드 호텔(8월18일), 살롬 기도원(8월19일)

### 일정표

- 8/17(월) : 목사고시
- 8/18(화) : 창립총회 및 목사 안수식
- 8/19(수) ~ 20(목) : 특별 세미나 및 관광

### 목사 고시자 모집

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MDIV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번 총회에 목사 안수를 희망하는 자

- 1) 8월 14일까지 원서접수
- 2) 8월15일 사전 교육
- 3) 과목: 구약, 신약, 소요리문답, 세계교회사, 일반상식

### 본 연합총회의 특징

- \* 순수한 기독교 복음 선교 및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 \*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및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누구든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 교단정치를 지향하지 않는다.
- \* 시무정년을 두지 않는다.

##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

General Assembly of Christian Gospel Mission Alliance (CGMA)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35-6889, (714)588-1109



##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부문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2. 신학 대학원
  - 1) M.Div.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과정 - 3년 / 56학점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 설립 첫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미주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8월 31일(월) - 11월 6일
-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1월 30일(월) - 2월 5일
-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22일
-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22일

##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35-6889, (714)588-1109





## 목사 청빙

**토랜스 제일 장로교회(PCUSA 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청빙대상**  
1) 임기목사(2년)
- **청빙자격**  
1) 정규대학, 정규신학대학원 졸업자(M.Div 이상)  
2) 목사안수 후 목회 경력 5년 이상 하신 분  
3)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분  
4) 한국어/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 **구비서류**  
1) 본인 이력서와 가족 소개서  
2) 신앙고백서와 목회계획서  
3) 학력 증명서와 목사 안수증 사본  
4) 최근 6개월 내 설교 CD 2부
- **기타사항**  
1) 교회 소개는 www.1church.com을 이용해 주십시오.  
2) 1차 심사 후 기타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 및 증명서, 추천서 등)  
3) 본인 Email 주소도 첨부하고, 문의는 Email : tfpcusa@gmail.com으로 연락하시고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바람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서류마감 : 2015년 8월 31일**  
제출처 :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청빙위원회 Tel : (310)618-2222  
주 소 : 3435 Wilshire Blvd, #1075, LA, CA 90010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 집 떠나봐야 집 좋은 줄 안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서울은 장마 후 찜통 더위 속에 빠져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던 장마비가 그치고 채 빠져나가지 못한 축축한 습기들이 밤에도 마치 사우나실 같은 느낌을 준다. 한강 둔치에는 늦은 시각에도 사람들이 몰려 나와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잊어 보려 하지만 역부족인 듯 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4, 5마일을 걸어도 별로 땀을 흘리지 않았건만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기위해 오르내리는 동안 땀이 범벅이 되어 외출한 후에는 반드시 옷을 갈아 입어야 할 정도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만드는 뜨겁고도 축축한 서울의 공기를 들어마시며 건조한 캘리포니아의 사막성 기후가 벌써 그리워진다. 건조한 공기로 인한 기관지염으로 늘고 생하고 있는지라 적당한 습도가 있는 공기를 그리워 했지만, 열기를 머금은 서울의 눅눅한 공기는 캘리포니아를 너무도 그립게 만든다.

‘집 떠나봐야 집 좋은 줄 안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나. 세상에 더 좋은 곳도 참 많을텐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신이 머무는 곳이 세상에

는 일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불편한 존재였다. 이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지혜를 얻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필요도 발견하게 된다. 언제나 남의 떡은 커보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곳의 공통점은 좋은 것과 힘든 것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어느 누구나 부러워할 점과 동시에 저런 힘든 점도 있나라고 여길 정도의 고민거리도 함께 안고 있는 모습이 보편적인 모습이다.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좋은 점을 파악하는 자이다. 너무 익숙해 지다보니 좋은 것조차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성찰해 보는 능력이 있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맞다. 공평과 정의로운 세계를 다스리신다. 더 나은 듯 싶어도, 더 멋있는 것처럼 보여도 알고보면 다 거기가 거기다. 여름에 운치있는 비도 내리고 적절한 습도를 머금은 공기가 있는 서울을 그리워했지만 열대야에 허덕이는 서울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지금은 천국임을 인정한다.

## 담임 목사 청빙 공고

저희 교회는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중심지인 산호세 지역에 있는 **산호세 새소망 교회** (San Jose New Hope Christian Reformed Church)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1. 자격

- 1) 신학 대학원 졸업한 분으로서 Christian Reformed Church (개혁 장로 교회)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2) 목사 안수 후 이민교회 담임목회 혹은 부목사로 5년 이상 사역 하신 분
- 3)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유하신 분

###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연락처 명기)
- 2) 목회 계획 및 자기 소개서(가족 포함)
- 3) 최근 설교 2개 이상(동영상 CD 또는 DVD) 혹은 설교 말씀이 실린 웹 사이트 소개
- 4) 정규 대학 및 신학 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1통
- 5) Reference 2분 이상
- 6) 본인 및 가족 사진

### 3. 제출처 (가능한 서류는 soft copy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mpastorsearch@sanjosenewhope.org  
주 소 : 담임목사청빙위원회, San Jose New Hope Church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www.sanjosenewhope.org  
제출 기한 : 2015년 7월 31일

### 4. 유의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2)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해주세요.

## 산호세 새소망 교회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 소리가 아닐까 싶다. “공부 좀 해라, 공부 해서 남 주냐?” 공부하고 있는데 와서 하는 말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된다” 누구는 어찌구 저찌구 잔소리를 한다.

나중에는 그 소리에 신경질로 반항하게 된다. 그렇게 자란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신경질적이 된다.

부부 사이 말다툼의 가장 큰 원인도 잔소리 때문이다. 바가지라고 한다. 소리가 커진다.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다.

어떤 죄수가 새벽에 감옥에서 탈출 했다고 한다. 그러자 모든 언론에서 흉악범이 탈출했다고 난리가 났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날 밤 12시경 그 죄수는 감옥으로 다시 돌아 왔다. 마음을 졸이던 간수는 죄수를 보자 너무나 감동해서 물었다. 돌아와 줘서 너무 너무 고맙다. 어떻게 감옥에 돌아올 생각을 했나? 어떻게 그 사이 마음이 변해서 네 스스로 이렇게 감옥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지?

간수의 물음에 죄수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털어 놓았다.

새벽에 탈출해서 곧바로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밤 12시쯤에 집에



정우성 목사  
남계주광영교회

들어갔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랬는데?

아니, 새벽에 탈출한 사람이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바가지질 끊어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보다 감옥이 훨씬 낫겠다 싶더라고요.

배우자의 잔소리, 그것은 탈옥수조차 치를 떨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기 바란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 격려해 주자. 칭찬하자. 사랑으로 대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삼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잔소리를 했다는 흔적을 발견 할 수 없다. 제자들을 오히려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칭찬했다. 물론 책망도 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 주를 버릴 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한 지 열

마 안되어 예수를 부인한다.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가 그럴 줄 아시고 중보기도를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버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를 기억하는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요21:5-6) 그 후 먼저 육지에 가서서 숯불을 피워놓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배반했던 그들을 향해, 아침식탁으로 초청하신다. 끝까지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격려하신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는 대사도가 된다. 변화된다. 진정한 제자가 된다.

우리도 가족, 가까운 직장동료들, 친구 등에게 잔소리보다 인정하고 도와주고 사랑의 손을 잡아 준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변화는 이미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잔소리로 지적하여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감싸주고 축복하며 다가갈 때 일어난다.

## 유치부(Pre K-K)전도사 청빙

**선한목자 장로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치부(Pre-K)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 1. 지원자격

-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양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 3. 주요사역 :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 4. 제출하실 곳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 최 클락 목사-교육부 담당목사)

### 5. 제출마감 : 2015년 8월 20일(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선한목자 장로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 가져 갈 수 없는 무거운 짐



김성민 목사  
남계주새소망교회

며칠 전 자동차로 엘에이에서 오레곤으로 가기 위하여 분주히 준비를 했다.

10일 동안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옷이 몇 벌, 신발이 몇 켤레, 그리고 엘에이에서만 구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참기름과 그 외의 것들 또한 작은 공간에 최대한 채우기 위하여 모처럼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나 많아서 한 가지씩 포기하는 시간도 있었다.

결국 온 가족과 엄청난 짐을 미니밴 뒤에 싣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여행을 많이 해보기는 했지만 늘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그 많은 짐들을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가지고 간 짐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입고 간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여행하려고 짐을 싸도 참으로 욕심이 앞서는 자신을 되돌아 보면서, 좀 더 훌훌 털고 살 수는 없는지 생각하게 된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한 욕심때문에

훌훌 털어내지를 못한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사 도중에 살림을 잃어버린 적도 있다. 나의 실수로 큰 손해를 본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억울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모른다. 문득 지난 일이 생각난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세상의 짐이 진짜 짐이 아닌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세상 짐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아무 말없이 가야하는 인생들인데 어찌 그렇게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답답한 노릇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 1-3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쌓아 두는 것은 하늘 나라에 하라고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다. 짐이 적어도 행복한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계도 시간이 지나가니 가치가 없게 되듯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갑시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미니밴에 꼭 채워서 갔다. 나도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닌가 실망스럽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가벼운 것을 자랑해야 하는데 말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www.sellacare.com SEARCH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M3® 세트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제품소개



#### M3

이 영양 보충제는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효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콩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면을 가집니다.



#### VC 2000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 좋은 Rosehips와 Acerola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 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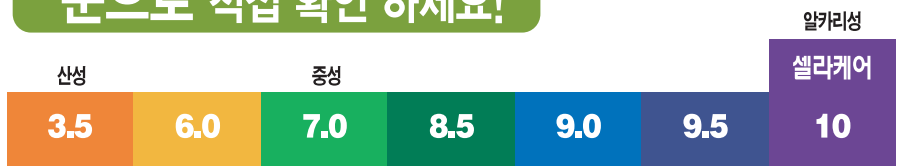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물,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팽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 GOLDEN WATER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D는 베타D,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크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크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흡소핑	714,496,7887	토랜스	213,268,0844
시온약국	213,344,973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뉴욕,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LA 57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밸리	818,642,8223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텍사스 (로알백화점)	972,620,2900
LA 다운타운	213,798,3333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캐나다	604,872,1669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로렌하이츠	626,912,5727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 “사모들, 성령 충만으로 목사님들 변화시키자”

## 제21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성황리에 마무리



설동욱 목사의 설교에 사모들이 오랫동안 활짝 웃음꽃을 피우며 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21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지난 7월 27-30일 3박 4일간 서울 상봉동 예정교회(담임 설동욱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메르스 사태로 한 달 정도 연기되면서, 사모들의 더 많은 기대와 사모함 속에 시작됐다.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해지는 사모 세미나’라는 슬로건처럼, 사모들은 강사와 간증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눈시울을 적시고 활짝 웃기를 반복하면서 그간 쌓인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치유받고 영적 에너지를 얻었다.

특히 세미나의 하이라이트인 셋째 날 저녁 집회에서 요한복음 20장 19-2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설동욱 목사는 “아무리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고 말씀을 많이 듣고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기쁨과 만족은 사라져 버린다”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의 종답지 못하고 사모답지 못하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보잘 것없는 인생이 되고 말지만, 성령 충만하면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내놓을 게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다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설 목사 설교에 앞선 ‘목회자 자녀들의 간증도 눈길을 끌었다. 한 여 청년은 “교회 성도에게 치이고 돈에 치이고 시댁에 치이고 남편에게 치여 도망가고 싶으실 텐데, 많은 험난한 삶의 고비에서도 남편 목사님과 아들 딸들과 사모로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엄마가 사모님이라서 좋습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설 목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우시고 아주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시면서 마음껏 웃으시고 행복해 하신다면, 그 눈물과 웃음이 힘든 목회 길에 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삶과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며 “사모님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피곤하고 지친 영육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 교회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모든 성도와 스태프들이 기도하며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 한기총, 한국교회 통일나눔펀드 참여

## 제26-7차 임원회의 열고 주요 현안 논의해



한국교회 통일나눔펀드에 참여한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장과 임원진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7월 30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6-7차 임원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또 한국교회 통일나눔펀드 참여의 건으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대표 안병훈)에서 진행하는 통일나눔펀드에 회원 교단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임원들이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26-5차 긴급임원회의의 안건 재확인의 건은 “지난 6월 16일에 있었던 제26-5차 긴급임원회의의 안건 및 결의사항을 재확인하므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일부 의견들은 전혀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했다.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 기념 감사예배의 건으로 준비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기총 주최로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8월 15일 오전 6시 여의도순복음교

회 대성전에서 드리는 것을 보고했다. 설교는 소망교회 원로목사인곽선희 목사(한기총 명예회장)가 전하고, 이 밖에 축사 및 격려사 등의 순서자를 발표했다.

기타 안건으로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증경대표회장과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에서 증경대표회장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제 3조 8항은 발전기금 5천만 원으로 수정했다. 또한 한기총으로 고소, 고발을 제기한 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회의에 앞선 예배에서는 김흥기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하였고,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 인권은 외면, 타락한 성문화는 옹호

## 탈북자들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 촉구

탈북민단체연합회와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회는 4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조광수·김승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탈북민단체 연합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유권자연맹의 전혜근 사무총장의 사회, 국민연대, 애국가 제창,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와 탈북민자립지원센터 강철호 대표와 통일을 준비하는탈북자협회 김현숙 실행위원의 대표 발언,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이용희 공동대표의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됐다.

이용희 공동대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이기택 법원장은 헌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뒤로하고,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비송 재판 건으로 접수했다. 7월 6일 단독 재판장으로서 비공개 심리를 마치고, 이제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제쳐놓

고, 한 지방법원에서의 단독 판사에 의한 비공개 재판에 내걸려도 되는지, 이것이 과연 상식과 사법 체계에 맞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 개정 없이 서부지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 5명은 기자회견 이후 대법원 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북민자립지원센터,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겨레선교회,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수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국민연대,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245개 단체가 참여했다.

강해진기자

# 통합 동반성장위, 자립대상교회 선교대회 개최

## 채영남 부총회장 ‘섬겨서 복 되고, 씩씩으로 세상 살리자’

예장통합 교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박화섭 장로, 이하 위원회)가 제 99회 자립대상교회 서울지역 목회자선교대회를 7월 31일 서울 약수동 신일교회(담임 배요한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선교대회는 오전 개최예배 및 주제강의, 오후 정책 설명 및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교회동반성장위원회(前 교회자립위원회) 취임 결과, 2014년 현재 총회 8,592 교회 중 2,379곳이 자립대상교회(미 자립교회)라고 한다.

예배는 이근식 목사(위원회 서기) 사회로 조한원 장로(위원회 회계)의 기도 후 목사부총회장인 채영남 목사(광주분향교회)가 설교했다.

채영남 목사는 ‘나는 복이 될지라(창 12:1-3)’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 초기 험겨운 상황에서도 그저 ‘복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받

던 지원을 끊고 섬김 사역을 시작했다”며 “그러다 보니 교회도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총회장으로 섬김 기회까지 주셨다”고 했다.

채 목사는 “교회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으로, 무엇보다 복을 받고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그 복이란 다른 아닌 예수님이시다. 다른 것 없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나아간다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목사는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라며 “섬겨서 복이 되고, 씩씩으로 세상을 살리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역설했다.

장로부총회장인 박화섭 위원장은 인사를 통해 “시행 10년차를 맞는 총회 자립사업은 교회의 물질적 지원과 협력을 토대로 선교적·목회

적 역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고자 하는 교회생명 살리기 운동”이라며 “또 총회와 노회 및 지교회들과의 관계를 주님의 몸된 하나의 공교회로 묶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영택 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교회자립사업은 타 교단에서 부러워하여 벤치마킹하기도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목회 현장에서 교회 자립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고 애쓰시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여러분과 그 가족들께도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예배는 배요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오후 시간은 백명기 목사(총회 농어촌선교부 총무) 사회로 박화섭 장로의 인사 후 전만영 목사(위원회 교육정책분과위원장)가 총회의 동반성장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대웅 기자

#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8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 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 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oAs 1-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학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룩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민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643-0301 / Fax (323) 643-0202  
 www.aeu.us / aeumaster@gmail.com



# UMC 동성결혼 인정 이후는?

## 펜실베이니아 웨슬리교회, UMC 교단 탈퇴 결의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탈퇴한 웨슬리교회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감리교회가 교인 투표를 통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UMC)를 떠나기로 했다.

주일예배 평균 출석 인원이 약 650명인 펜실베이니아 주 퀴리빌에 있는 중형 감리교회 웨슬리교회는 약 5개월 간 교단 탈퇴를 놓고 토론 및 모임을 갖고 교인 투표를 실시한 후 다수의 의견을 따라 UMC 탈퇴 결정을 내렸다.

교인 투표에서 UMC 탈퇴에 찬성하는 교인들이 무려 95%에 달했다. 이후 교회 대표들이 UMC 측과 논의한 후에 교회 재산을 지키는 대신 UMC 측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 협상 조건을 놓고 다시 투표를 실시, 97%의 교인들이 찬성해 지난 7월 5일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UMC에서 탈퇴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웨슬리교회는 이번 교단 탈퇴로 소속 교단이 없는 초교파교회가 됐다.

크리스 렌하트(Chris Lenhart) 웨슬리교회 협력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에 "우

리는 웨슬리가 믿고 지지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UMC 사이에 큰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서 "우리가 UMC를 탈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입장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웨슬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으며 무오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완벽한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믿고 지지한다"고 천명한 후 "우리는 UMC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 그들은 커다란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렌하트 목사는 "우리의 소망은 UMC 내에 성경의 영감성, 무오성, 유일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이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라면서 "UMC 내의 일부 교회에게는 교단 내에 머물면서 내부 개혁을 위해 싸움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교단에서 탈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확했다"고 말했다.

# 마크 드리스콜 목사

## 남 비판했던 내 모습 회개 중

이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마크 드리스콜 목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기 설교자들에게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서 이에 대해 사과할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0월 논란 속에 마스할처처에서 물러났던 드리스콜 목사는 최근 힐송 처치의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오스틴 목사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발언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휴스턴 목사는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대해 비판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며 "어떤 이슈에 대해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른 목회자들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리스콜 목사에게 "오스틴 목사는 개인적으로 나의 친구 중 한 명인데, 오스틴 목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자 드리스콜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는지,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스틴 목사에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하셨다"며 "아는 친구를 통해서



마크 드리스콜 목사

오스틴 목사 팀에게 연락을 했고, 개인적으로 사과 편지를 보내도 되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드리스콜 목사는 또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동료 목회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목회자들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다른 목회자나 리더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공감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을 비판했고, 그들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드리스콜 목사는 "내가 비판해 온 사람들 중 일부는 나를 사랑과 친절로 대했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회개로 인도했다"고 말했다.

# 러셀 무어, '성 윤리 논쟁' 지속 주장

## 침묵 비판하고 확신과 온유 주문



러셀 무어 박사

미국 남침례회 윤리와 종교 자유 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이 "교회가 동성결혼을 비롯한 모든 성적 윤리에 대한 논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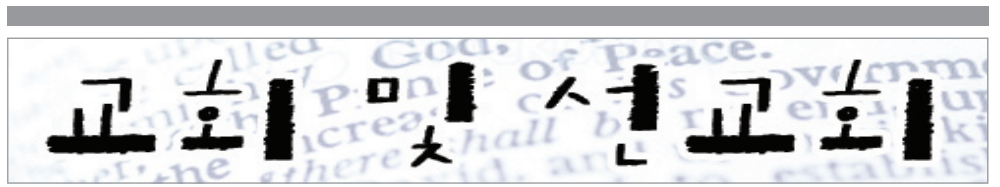
지난달 29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이콥 오스틴'(Equip Austin) 행사에 참석한 러셀 무어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특히 기독교적 성 윤리를 고수하는 이들이 '편협하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성과 성적 혁명에 대한 이슈들은 매우 논쟁적이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침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발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교회가 성 윤리와 관련된 논쟁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라 복음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전통적·기독교적 성 윤리를 방어하기 위한 논쟁을 할 때 '확신과 온유'를 지녀야 한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남침례회가 지난 6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고 재정의한 지 한 달 만에 열렸다. 무어 위원장을 비롯해 영국인 로사리아 버터필드 전 교수, 빌리지교회 매트 캔들러 목사, 텍사스 남침례회 집리처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남침례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연방대법원을 향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남침례회는 어떤 정부기관에게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거나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한다"며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결혼에 대한 남침례회의 교리와 신조에 변함없이 헌신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p><b>LA 지역</b></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p> <p>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집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버림중학교 / 토요새벽 - 17외버몬트 크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b>김기섭</b>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b>LA 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부터 임자며, 이만2가정을 시로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연재선</b> 담임목사</p> <p><b>LA 온하늘교회</b>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 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b>박성도</b> 담임목사</p> <p><b>LA 선교교회</b> 내 지경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령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소망으로 기뻐하라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0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예배 오전 11:00</p> <p>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 연합새벽 오전 6:20</p> <p><b>한현영</b> 담임목사</p> <p><b>갈릴리션교회</b>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00</p> <p>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현연섭</b> 담임목사</p> <p><b>구인성장교회</b>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 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323) 428-7878 / F. (323) 932-0788 / kuinholy@hanmail.net</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b>엘리아 김</b> 담임목사</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p> <p>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p> <p><b>진유철</b> 담임목사</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p> <p>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p> <p><b>한기형</b> 담임목사</p> <p><b>나성동산교회</b>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어침년부 오후 1:30</p> <p>주일학교 오전 11:00</p> <p><b>서건오</b> 담임목사</p> <p><b>나성서부교회</b>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침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p> <p><b>박현성</b> 담임목사</p> <p><b>나성열린문교회</b>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p> <p>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월)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p> <p><b>김광삼</b> 담임목사</p> <p><b>나성제일교회</b>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p> <p>화요침묵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p> <p><b>정우성</b> 담임목사</p> <p><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p>
<p>주일 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p> <p>EM, 예배 주일 오전 11:00 심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p> <p><b>이영</b> 담임목사</p> <p><b>라성빌라델비아교회</b>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p>	<p>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p> <p>중, 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p> <p><b>김경철</b> 담임목사</p> <p><b>산타모니카한인교회</b>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p>
<p>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p> <p>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p> <p><b>신현호</b> 담임목사</p> <p><b>새하늘 교회</b>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p> <p><b>조인수</b> 담임목사</p> <p><b>씨니사이드교회</b>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b>엘에이연합감리교회</b>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b>김요섭</b> 담임목사</p> <p><b>열매교회</b>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힐스와 윌튼 뒀) T. (213) 380-0071</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p> <p>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p> <p><b>정장수</b> 담임목사</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넬렛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산부 메디칼</p> <p><b>요한 선교교회</b>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p> <p>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b>류종길</b> 담임목사</p> <p><b>임마누엘선교회</b>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6:00 (월-토)</p> <p>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p> <p><b>신승훈</b> 담임목사</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p> <p>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p> <p><b>이명수</b> 담임목사</p> <p><b>청운교회</b> 선교에 흐름, 스.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목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b>민중기</b> 담임목사</p> <p><b>충현선교회</b>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b>곽부환</b> 담임목사</p> <p><b>한마음제자교회</b>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p> <p><b>강지원</b> 담임목사</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성민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모임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00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여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청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묵 담임목사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주일예배 오전 11:45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영어)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김준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한이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 2부 11:00    권준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예배 오전 10:00    김바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오후 2:00(장년)    수요예배 오후 8:00  
KM예배 오후 8:00(장년)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부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정영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할-금 오전 5:30    www.dreamumc.com  
EM 1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역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박력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새벽예배 할-금 오전 5:30    새벽예배 할-금 오전 5:30  
수요영성예배 - 저녁 7:45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최호년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십홀)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본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십자가 들고 거리 활보하는 중국 교인들

정부 탄압도 불사, 소셜 미디어에도 십자가 인증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 (사진 출처@WENYUNCHAO TWITTER PHOTO)

중국 저장성(절강성, 浙江省)의 기독교인들이 중국 정부의 교회 탄압에 맞서기 위해 7월부터 연합해 십자가를 만들어 저장성 곳곳에 이를 들고 다니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 뉴스는 지난달 28일 저장성의 가톨릭 신도들과 개신교인들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이같은 시위를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저장성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독교인들은 또 자신들의 집에 십자가를 세운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인증 시위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교회의 십자가를 제거하도록 한 것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 목회자들은 중국 전역의 교회가 이 평화 시위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거룩한 상징물인 십자가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로 연합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는 것이다.

이명을 요구한 한 관료는 글로벌 타임스에 “교회측과 성도들은 (십자가 제거) 매우 협조적”이라면서 “십자가 제거에 협조적이지 않은 일부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중국 고위 관료가 저장성 교회 지붕에 있는 십자가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지난 5월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초부터 저장성에서 최소 400개 이상의 십자가가 교회에서 철거됐다.

중국 목회자들은 이같은 교회에 대한 탄압이 중국에서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칹 레궈(Zheng Leguo) 목사는 십자가 철거에 대해 “공공 장소에서 기독교를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에 대한 탄압은 저장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에는 광둥성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포함해 100여명이 체포됐으며, 최근 수년 동안 다수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공공질서를 불안하게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美 조지아주 교육청 소송당해

운동부 코치 기도 허용으로 소송당해 2만 2천 5백달러 지급

조지아주의 한 교육청이 2만 2천 5백달러를 보험업자를 통해 한 인본주의 단체에 지급해야 하게 됐다.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단체가 지역 고등학교 코치들이 공식 팀 로고북과 홍보 배너에 성경 구절을 넣는 것은 물론 팀을 지도하며 기도했다는 혐의로 학교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학교의 레슬링팀 코치와 행군 악대 지휘자가 소속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기도해왔다고 덧붙였다.

무신론자 단체인 미국인본주의협회(American Humanist Association)는 지난해 12월 조지아주 게인즈빌의 홀 카운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레슬링팀 코치는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인용해 팀의 선수들에게 “예수는 레슬러”라고 말하고, 행군 악대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학생 기도 대표를 뽑도록 허락했다.

이 교육청이 코치나 교직원들이 공식적인 학교 행사에서나 팀을 지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팀의 문서에 성경구절을 허용하는 등의 관행을 보여 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체스태티티 미시축구팀 코치들이 소속 학생들에게 배포한 로고북 하단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넣는 것과 게임에 사용된 배너에 잠언서 27장 17절을 넣도록 허락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런 가운데 이 단체의 아피그나인 본주의법률센터는 이번 소송 건에 대해 최근 피고측과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노스 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스 홀 야구팀 코치가 팀을 이끌면서 기도를 해왔다는 것이다.

원고측의 소송 비용 2만 2천 5백달러를 지급하고 교육청 직원들에게 내년 학기 시작 전에 수정헌법 1조와 학교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해 교육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소송 대상에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윌리엄 스코필드 교육감과 수잔 제라드 체스태티티 교장도 포함됐다.

이 인본주의 단체는 앞서 지난해 8월 교육청에 경고서한을 보내왔는데, 교육청 산하의 체스태티티 고등학교와 노스 홀 고등학교의 운동부 팀들이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스코필드 교육감은 성명서에서 보험회사를 통해 2만 2천 5백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체스태티티 코치들이 팀을 지도하면서 게임이나 연습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관행이 계속

스코필드 교육감은 “홀 카운티 교육청이 주 법이나 연방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에서는 원고측에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체스태티티 코치들이 팀을 지도하면서 게임이나 연습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관행이 계속

한편, 미국인본주의협회는 앞서 미시시피주의 한 교육청을 상대로도 학교 행사에서 기도와 성경 배포를 허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美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무시 호소

테니스주의 한 국회의원이 서한 발송

한 테니스주 국회의원이 카운티 법원 서기들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무시를 호소했다.

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릭 위믹(Rick Womick) 주하원의원은 지난 7월 26일 주 정부로부터 동성결혼 부부에 대해 결혼허가증을 발급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카운티 법원 서기들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카운티 법원 서기들은 카운티를 섬기기 위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투표로 뽑아준 카운티 주민들에 대해 책임을

또 법원 서기들에게 “찬성표를 던진 연방대법원의 다섯 명의 대법관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선서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근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판결을 무시하고 주 헌법에 따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에 대해서만 결혼허가증을 발급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다수의 주에서 반대 및 불복종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 중동에서 영적 추수 시작

## IS 대원 등 무슬림 수천명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으로 알려진 가스르 엘 야후드 ©이스라엘 관광청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로 인해 이라크와 시리아 등 중동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가운데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다.

3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다.

바라잔 아지즈(Barazan Azeez)는 크리스천포스트에 “나는 헌신된 무슬림으로 설교도 가끔했다. 하지만 무엇인가 빠진 게 있었다. 알라와 쿠란에는 뭔가 빈 게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꿈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내 눈을 여셨다. 빠진 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과 평화였다”고 말했다.

IS에 의한 압제와 불의에 환멸을 느낀 다른 많은 무슬림들처럼 아지즈도 성경을 찾아서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도 내적으로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알라를 항상 두려워했다. 나는 알라를 만족시키기 위해 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으며, 그분의 진리를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무슬림들은 이슬람 공동체에서 배척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서 의절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한다.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배교는 사형에 해당한다. 쿠란 2:217절과 4:49절 등 두 구절에서 배교에 대해 사형을 명령하고 있다. 하디스에서 이슬람 배교자는 살해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하디스는 이슬람 최고 예언자인 무함마드(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말씀을 지속 제자들이 자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아지즈는 이것은 예수를 만난 무슬림들이 기꺼이 치르기로 원하는 대라고 말했다.

아지즈는 “처음에 나의 가족은 내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미쳐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수 개월 동안 대화를 했고, 가족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은 대부분 가족들로부터 모두 아지즈와 비슷한 일을 당했다.

또 다른 일부 무슬림 회심자들은 크리스천포스트에, 다른 이들은 선교사들이나 교회로 인도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안고한 IS 살인자들의 마음에 감화감을 준 것은 독특한 기독교의 평화의 메시지였다.

아지즈는 “IS가 이라크의 모술을 점령한 후 교회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면서 “한 IS 대원은 한 교회를 파괴하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어두워진 이후 교회를 방문했다가 매우 밝은 빛을 보았다. 그 빛은 자신을 예수라고 밝혔고, 그 IS 대원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했다”고 말했다.

시리아의 또 다른 IS 대원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나 상처 등을 치료한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바로 예수였고, 예수를 메시야로 영접하고 그들의 삶에 받아들였다.

중동의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많은 최전선의 사역자들은 이 지역에서 복음이 확산되면서 많은 무슬림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 UAE서 중동 첫 차별금지법 통과돼

## 기독교 등 소수종교 보호 · 이슬람 극단주의 억제 목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00여 개 국적의 국민과 거주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에게 맞서기 위한 새 반증오발언법(anti-hate speech law)이 최근 통과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공식 뉴스 사이트인 WAM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인쇄물이나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증오발언을 확산시킬 경우 60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새 법은 또한 종교나 계급, 신조, 교리, 인종, 피부색 또는 인종 등에 의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종교 단체에 대해 ‘이교도’나 ‘불신자’라고 부르는 것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연계해 증오 활동을 벌이고 있

는 이들이 자신 신고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피할 수 있다며 자신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 법안은 평화를 원하는 아랍 국가가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평가다.

이 새 법은 아랍에미리트의 120만 기독교인들과 시아파 무슬림, 힌두교도, 시크교도 등 소수 종교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두바이 베델교회의 그란 페르난데스목사는 이 법이 모든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새 법은 종교에 대한 관용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 세대를 제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아랍에미리트는 무슬림이 대부분인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적이며 기독교인들이 핍박이나 폭력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나라다.

# 미국 보이스카우트

## 동성애 성인 지도자 선임 최종 허용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이 동성애 성인 지도자 선임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보이스카우트연맹은 27일 열린 전국이사회에서 성인이 맡는 단장 자리를 동성애자가 맡을 수 있도록 한 ‘동성애 성인 지도자 선임 금지 조항’을 철폐하되 종교 단체의 후원을 받는 조직은 예외로 하는 안을 45대 12로 가결했다.

이 안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보이스카우트연맹 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전 국방장관 출신의 보이스카우트연맹 로버트 게이츠 총재는 지난 5월 ‘성

인 동성애자를 배척해 온 조항은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동성애 성인 지도자 선임에 적극적으로 나서 논란을 일으켰었다.

보이스카우트연맹은 지난 2013년 5월 청소년 동성애자가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회 등 보수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후원 기업들이 지원을 삭감하는 등 흥역을 치렀었다.

이후 성인 지도자 월급을 받는 유급 직원으로는 동성애자를 뽑지 않았지만, 게이츠 총재의 강력한 의지로 이번에는 이마저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주일목사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재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후 12:30 유, 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베델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남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F. (714) 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일룡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TH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새벽 행사(바) 기도회 새벽 6: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 (성경 66권 특별성경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반성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와 영혼의 생명을 기쁘게 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복 목사 회장 주혁모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 (1-6) 오전 11:00  
토요 연합 새벽기도회 오전 6:00 Youth (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앨버틴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교육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김용철 담임목사**

**앨버틴 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 309-7551  
Pastoryckim@yahoo.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들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vd.,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주일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본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모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강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미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www.gemgem.org

# 개 교 축

## 2015년 8월 20일 미국 펜실베니아 캠퍼스

다음 세대를 섬길 주님의 인재양성 멈출 수가 없습니다.



### 미국 GVCS 후원운영이사



### 미국 GVCS USA 운영진



#### 후원기관

KISS USA (CEO 장용진)  
 Orthopedic 병원그룹 (CEO 김상범)  
 The Michael Group (CEO 엄두식)  
 아메리카 한인 재단 (총회장 이우호)  
 미주성시화본부 (본부장 이성우)  
 펜실베니아 한국전 참전용사 협의회  
 Scotland Campus Inc. (CEO David Newell)  
 미주성시화운동 홀리클럽 (김경수장로)  
 미주 GMS 대표 (한성수 목사)  
 Son Ministry (김정한 선교사)  
 KCCC USA (담임 김동환 목사)

#### 자매학교

Broadfording Christian Academy (MA)  
 Christian Academy of Louisville (KY)  
 Clear Lake Christian School (TX)  
 Valley Christian School (CA)  
 Turlock Christian School (CA)  
 Grace Christian School (MA)  
 Christian Academy of Indiana (IN)  
 Shippensburg University (PA)  
 Cumberland Valley School of Music (PA)  
 Winebrenner Theologic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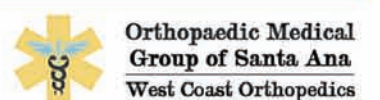
#### 후원교회

세인트 루이스 한인교회 (담임 서정곤 목사)  
 남가주 가스펠 교회  
 뉴저지 하늘문 교회 (담임 홍인석 목사)  
 뉴저지 시나브로 교회 (담임 박근제 목사)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나성동산교회 (담임 한기형 목사)  
 코랄리치한인교회 (담임 이우호 목사)  
 샌디에고 한인연합 감리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큰빛 감리교회 (담임 조현영 목사)  
 과테말라 한인교회 (담임 김상돈 목사)  
 시애틀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한용석 목사)  
 Chambersburg First Church of God  
 Greenvillage Church of God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인재양성 사역에 함께하실 운영이사님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재발굴, 교육환경조성, 교육과정연구, 교육정책개발, 국제관계발전 등 더 나은 기독교 교육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상담 | 717-830-9356  
(3583 Scotland Rd., P.O Box 370 Scotland, PA 17254)







故 김수석 선교사 ©컴이션 제공

### ‘살신성인’ 김수석 선교사, 순직자 추서 추진

#### 고인의 교회와 학교 그의 선교적 순직신앙 이야기

최근 해외 선교지에서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김수석 선교사(23·대전신대 3학년) 순직자 추서가 추진되고 있다.

김수석 선교사가 전도사로 있던 강경중앙교회의 이승남 담임목사는 “교단(예장 통합) 내 순교순직 위원회에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우들이 힘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김 선교사에 대해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도 받고, 아동부·중고등부·청년부를 거치며 신앙생활을 했다. 아동부 교사와 찬양단으로도 열심히 봉사했다. 군중병으로 복무를 마친 뒤, 복학하기 전 남은 시간을 이용해 단기선교 훈련을 갔던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교회 내 분위기가 침통했는데, 어제 주일예배에

서 ‘우리 교회가 순직자를 배출한 교회인 줄 알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7월 25일 드린 발인예배에서 ‘내가 달려갈 길’(행 20:24)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대전신대 김명찬 총장은 “고인의 살신성인을 기리며, 본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며 “고인의 선교적 순직의 신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인이 다니던 대전신학대학교 측은 개학 이후 그를 위한 특별 추모 채플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수석 선교사는 감비아 파카린딩 교회와 유치원 사역을 마친 후, 지난 11일(현지시각) 브라카미에 온 미국 단기 사역팀과 산양 지역의 바닷가에서 주말을 보내다가, 현지인 소녀 두 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손을 내밀어 한 명을 구한 뒤 또 한 명의 소녀를 구하려다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 탄자니아 위한 스와힐리어 성경 기증

#### 예장통합 도립교회 후원 13,600부 보내기 기증식 가져

최근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예장통합 도립교회의 정명철 목사와 당회원들, 대한성서공회(권의현 사장) 모금사업부 장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13,6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인구는 4,9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 중 30%가 기독교인이며, 이슬람 35%, 토속종교가 35%에 달한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스와힐리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20개의 소수민족 언어가 있다.

탄자니아에서는 현재 140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2013년 기준). 탄자니아의 에이즈 인식률은 95%에 달하지만, 탄

자니아 사람들의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탄자니아성서공회에서는 성경 자료를 바탕으로 에이즈 치유 프로그램인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에이즈 예방 및 에이즈에 관한 편견 개선과, 에이즈 환자들의 영적 회복을 돕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1만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에이즈 환자들 뿐만 아니라 훈련생과 교회 및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 받고 있다.

한편 이번에 기증되는 스와힐리어 성경 13,600부는 오는 8월 3일 부산항에서 선편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다음달 9월 10일 탄자니아의 다레살람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 현장의 목소리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

한인세계선교사회, ‘제7차 지도력 개발회’ 원고 엮어 제작

전 세계 2만 7천여 명의 한인 선교사를 대표하는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대표회장 송종석 선교사)가,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제7차 지도력 개발회’(대회장 김종국 선교사)에서 발표된 원고들을 엮은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한국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라)’을 20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선교지에서 최소 15년 이상 사역 중이거나, 과거 사역 경험을 이 있는 현장 및 국내 선교 지도자 37명의 원고가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교육 선교’, ‘창의적 접근 지역’, ‘전문인 선교’ 등 주제별로 정리돼 있다. 때문에 후방에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한국교회가 선교 현장을 더욱 잘 이해하고, 한국 선교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KWMF가 제1·2·3차 지도력 개발회의가 끝날 때마다 발표 원고들을 엮어 3권의 책을 발간한 뒤, 여러 이유로 발간을 중단했다가 15년 만에 다시 발간했다.

KWMF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최근 몇 년 들어 한국교회의 위기와 함께 한국 선교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도 심심찮게 들려온다”며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반

성과 회개를 통해 우리 자신의 연합을 돌아보고 새롭게 회복돼야 할 시점에 책을 펴내게 돼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KWMF는 “이 원고들은 학술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한국 선교에 대한 선교사들의 진솔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며 “미래 각성을 위한 선교 시너이 그룹의 외침이자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소리를 통해 한국교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소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겨 주신 선교를 좀 더 겸손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기도한다”며 “선교 지방생,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선교학 교수, 선교 동원가, 선교 행정가들과 함께 원고를 나누며 한국교회 선교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선교사들도 우리 자신들의 현장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MF(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는 한인 선교사들의 유일한 대표기구로, 친목과 협력, 선교 전략 연구를 위한 선교 현장의 모임이다.

4년마다 정기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고, 회기 중간에는 지도력 개



발회의 및 중앙총회를 개최하여 세계 선교 동향 파악과 대안 모색, 정책 결정 등을 해왔다.

전 세계를 20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회장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분과별로 선교 전략 연구와 협력을 하고 있다.

KWMF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그 외 단체들이 개최할 주요 포럼 및 세미나 장소에서 교단 및 선교단체가 원할 경우 책을 1권씩 배포하며, 국내 기독교 대학 도서관 40곳을 선정하여 2권씩 기증,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 KWMF 편집장 김경일이(이메일 kimjoyh@gmail.com)

김은애 기자



성회가 진행되고 있다.

### 엘림 산상대성회

#### 메르스 사태 불구하고 기적으로 성황리 개최

의 모든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 뜻 깊은 성회는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며 “아직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게 약자의 옷을 벗겨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차츰 나아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북지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본다”고 했다.

특히 이 성회에는 군장병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섬기며 장애인들과 함께했다. 덕분에 성회 기간 중 교통 편의에서부터 이·미용 서비스와 숙식 등 모든 과정이 무료로 진행될 수 있었다. 봉사자들은 이 성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순수 봉사단체로 활동해 온 엘림장애인선교회는, 지난 1984년에 설립돼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 “세계 장애인과 함께 가자”

장애인들의 바른 삶과 선교, 재활을 위해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엘림장애인선교회(이사장 임순자 목사, 대표회장 박명순 목사)가, 올해도 세계 장애인들을 무료로 초청해 ‘제26회 여름 산상대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세계 장애인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야 2:13)라는 주제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국중앙기독교원에서 열린 이 행사는, 항상 집안에서 움츠려 지내는 중증장애인들을 초청해 자연 속

에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성회를 통해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했다. 특히 준비 기간 메르스 사태가 터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림장애인선교회 관계자들은 이 성회를 학습고대해온 이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적으로 성사시켰다.

대표회장 박명순 목사(포천감리교회)는 환영사를 통해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100명 이상이 기도하며 준비했다. 세계

## 2015학년도 가을학기(개교&개강)

# 아메리카 신학대학원&신학대학

신입생.편입생.통신생 모집

본교소개	모집내용	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BPPE의 확정(학위) 받음.</li> <li>•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학을 근본으로 하여 Westminster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교리의 표준으로 삼음.</li> <li>• 보수신학의 요람인 한국 합동총회 및 (사당동)총신대학교와 노선,뿌리,전통 같음.</li> <li>• 2015년(제37회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인준받음(동부:뉴욕총신 서부:본교)</li> <li>• M.Div(목회학석사)졸업자는 강도사교시 후 목사안수 받음.</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F9800; color: white;"> <th>구분</th> <th>학 위</th> <th>수업연한</th> <th>학점</th> <th>지원자격(세례3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대학부 Bachelor</td> <td>신학사 (B,Th)</td> <td>4년 (8학기)</td> <td>120</td> <td rowspan="3">고 졸</td> </tr> <tr> <td>상담학사 (B,C,C)</td> <td>3년 (6학기)</td> <td>120</td> </tr> <tr> <td>목회학석사 (M.Div)</td> <td>3년 (6학기)</td> <td>96</td> </tr> <tr> <td rowspan="4">대학원 Master</td> <td>상담학석사 (M.C.C)</td> <td>2년 (4학기)</td> <td>36</td> <td rowspan="4">대 졸</td> </tr> <tr> <td>선교학석사 (M,M)</td> <td>2년 (4학기)</td> <td>36</td> </tr> <tr> <td>교육학석사 (M,C,E)</td> <td>3년 (6학기)</td> <td>36</td> </tr> <tr> <td>신학석사 (Th,M)</td> <td>2년 (4학기)</td> <td>36</td> </tr> <tr> <td rowspan="5">박사원 Doctor</td> <td>목회학박사 (D.Min)</td> <td>2년 (4학기)</td> <td>48</td> <td rowspan="5">목회학석사 혹은 신학석사</td> </tr> <tr> <td>상담학박사 (D.C.C)</td> <td>2년 (4학기)</td> <td>48</td> </tr> <tr> <td>선교학박사 (D.M)</td> <td>2년 (4학기)</td> <td>48</td> </tr> <tr> <td>교육학박사 (D,C,E)</td> <td>2년 (4학기)</td> <td>48</td> </tr> <tr> <td>신학박사 (Th,D)</td> <td>2년 (4학기)</td> <td>52</td> </tr> <tr> <td>편목</td> <td></td> <td>1년(2학기)</td> <td>(헌법정치,조직신학,교회사)</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학 위	수업연한	학점	지원자격(세례3년)	대학부 Bachelor	신학사 (B,Th)	4년 (8학기)	120	고 졸	상담학사 (B,C,C)	3년 (6학기)	120	목회학석사 (M.Div)	3년 (6학기)	96	대학원 Master	상담학석사 (M.C.C)	2년 (4학기)	36	대 졸	선교학석사 (M,M)	2년 (4학기)	36	교육학석사 (M,C,E)	3년 (6학기)	36	신학석사 (Th,M)	2년 (4학기)	36	박사원 Doctor	목회학박사 (D.Min)	2년 (4학기)	48	목회학석사 혹은 신학석사	상담학박사 (D.C.C)	2년 (4학기)	48	선교학박사 (D.M)	2년 (4학기)	48	교육학박사 (D,C,E)	2년 (4학기)	48	신학박사 (Th,D)	2년 (4학기)	52	편목		1년(2학기)	(헌법정치,조직신학,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서구입: 직접 혹은 우송함</li> <li>•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학원서 1통(본교양식)</li> <li>2. 자필이력서 1통</li> <li>3. 사진(명함판) 3매</li> <li>4. (최종학교)졸업장 copy 혹은 졸업증명서(2중 택1)</li> </ol> </li> <li>• 편입생: 졸업증명서&amp;성적증명서 각1통</li> <li>• 면접&amp;Orientation: 본교 2015년 9월1일(화) 6:00pm</li> <li>• 개교&amp;개강: 9월3일(목) 6:00pm</li> <li>• 통신생: 세계 어디서나</li> <li>• 문의: <b>(714)321-4678</b> akr1234@hanmail.net</li> </ul>
구분	학 위	수업연한	학점	지원자격(세례3년)																																																		
대학부 Bachelor	신학사 (B,Th)	4년 (8학기)	120	고 졸																																																		
	상담학사 (B,C,C)	3년 (6학기)	120																																																			
	목회학석사 (M.Div)	3년 (6학기)	96																																																			
대학원 Master	상담학석사 (M.C.C)	2년 (4학기)	36	대 졸																																																		
	선교학석사 (M,M)	2년 (4학기)	36																																																			
	교육학석사 (M,C,E)	3년 (6학기)	36																																																			
	신학석사 (Th,M)	2년 (4학기)	36																																																			
박사원 Doctor	목회학박사 (D.Min)	2년 (4학기)	48	목회학석사 혹은 신학석사																																																		
	상담학박사 (D.C.C)	2년 (4학기)	48																																																			
	선교학박사 (D.M)	2년 (4학기)	48																																																			
	교육학박사 (D,C,E)	2년 (4학기)	48																																																			
	신학박사 (Th,D)	2년 (4학기)	52																																																			
편목		1년(2학기)	(헌법정치,조직신학,교회사)																																																			

- 개교기념: 각 학위 선착순 10명씩 등록금 80% 감면(졸업까지)
- 복한 자유이주민: 등록금 100% 감면(형상)(졸업서류 불발요)
- 통신생,교역자 및 직계가족: 등록금 30% 감면(형상)

## America Seminary & College

Campus: 170 Bimini Place, Los Angeles, CA 90004  
총장: 아브라함 목사(M.Div/Th.M/D.Min/Th.D/Ph.D)

분교: Denver, Colorado  
학장: 사무엘 목사(Th.M)



# Need color ?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opm Duplex	Dual Scan ADF 80opm Simplex	Emerson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Simitri with Biomax \*Optional : Fax & Finisher



# 왜 미국 교회들은 동성애를 허용할까?

## 성경해석 시각차이가 동성애 합법화 불려와

## 한국 교회들 동성애 문제 지혜롭게 대처해야

미국 장로교(PCUSA)는 지난 2011년에 열린 219차 총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 간 결합인 결혼을 했거나 독신일 경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교단헌법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후 2014년 221차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었고, 급기야 2015년 3월 17일자로 교회 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교단헌법 개정안 14F(동성결혼 인정)를 승인함으로써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미국 장로교같이 미국 내에서 동성애 목사 안수를 비롯해 동성애 결혼 인정 등 동성애 문제에 있어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교단은 현재 그리스도 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hrist),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성공회(The Episcopal Church) 등이 있다. 동성애 자들에 대한 이같은 교회 내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도 수년간 지속되어 온 동성애 결혼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러한 결정들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일부 한국 교회 언론이나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특별히 미국 교회의 동성애 결혼 인정에 대해 미국 교회가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변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 합법화는 미국 정신의 타락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더구나 이번 미국 교회와 사회의 동성애 결혼 인정과 합법화는 향후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한국 교계가 동성애 자들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을 갖고 반대하는 진영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감정적 반대보다 좀더 목회적 돌봄과 치유차원에서 끌어안아야 한다는 진영으로 나누어 서로를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미국 기독교의 변화와 상황들을 이해하면 동성애 성직자와 결혼에 대한 교회의 인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필자는 이 짧은 소고에서 미국 교회가 왜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렀는가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교계에 불어 닥칠 동성애 논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 1. 그간 동성애 문제를 반대하던 미국 교회들이 왜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교회의 두 가지 큰 줄기를 알아야만 한다. 미국 기독교는 크게 주류 개신교 교회들(Mainline Protestant)과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들(Evangelical Protestant)로 나뉜다.

예를 들면, 주류 개신교회들은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그리스도 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hrist), 성공회(Episcopal Church) 등이 있고,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들에는 남침례교회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루터교 미조리 총회(Lutheran Church - Missouri Synod) 등이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번에 동성애 성직자 인정과 동성애 결혼을 승인한 교단들이 바로 미국 기독교의 한 줄기인 주류 개신교회들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미국 주류 개신교회와 복음주의 개신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성서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주류 개신교회들에게 있어 성서는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성서를 하나님의 흠 없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문서로서 성서를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 안에 있고, 대부분 매우 중요한 진리이지만, 그것은 매 시대마다 해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성서는 새로운 시대적 사조와 사회적 변화를 향해 개방되어 있다고 믿는다.

반면 복음주의 개신교회들은 성서는 흠이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성서는 역사적 문서로서 새로운 시대마다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성서는 그 자체로 성서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the Bible is its own best interpreter)라고 본다.

실제로 2005년 미국 베일러 대학 종교 연구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성서가 문자 그대로 사실인가?' 라는 질문에 복음주의 개신교인은 47.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에, 주류 개신교인은 11%만 '그렇다'고 응답했고, 주류 개신교인 22%는 '성서



정진오 목사  
시온루터교회 한인담당

는 고대 역사와 전설을 담은 책'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성서에 대한 다른 이해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끼친다.

주류 개신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일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으며,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우주의 힘인 '멀리 있는 분(Distant God)'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이 개인의 일상 및 세계의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 때 화를 내고 벌을 주시는 '권위의 하나님'(Authoritarian God)으로 보고 있다.

구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주류 개신교인들은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지만, 다른 종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 간의 대화와 사회적 이슈들, 가령, 여성 차별, 시민 권리와 같은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좀더 진보적인 접근을 한다.

반면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

음만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들은 회심과 중생을 강조하고, 타 종교와 민족에 대한 복음전파와 개종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도 좀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류 개신교회와 복음주의 개신교회의 차이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미국 개신교회의 신앙 배경을 이해하면 왜 주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주류 개신교인들에게는 성서에서 금하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동성애자가 교회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서를 역사적 문서로 보고, 매 시대마다 해석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세상일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멀리 있는 분'으로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성서가 동성애를 금한다고 그대로 지키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류 개신교회는 동성애 성직자를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을 승인하는 것이 동성애를 금하는 성서를 버린 것이라는 비판에, 도리어 이웃을 돌보라는 성서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2006년 동성애자를 주교로 임명한 성공회 또한 그 결정이 반성경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전통에 얽매인 개신교인들이 시대에 맞춰 동성애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는데, 이것 역시 주류 개신교회와 복음주의 개신교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더해,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과 인권, 평등과 자유에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국 사회의 분위기와 독특한 소재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언론과 TV 매체들에 의해 동성애가 미화되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결혼을 합헌으로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 2. 한국 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 교회의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신앙 배경은 한국 교계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 사회에도 동성애자들이 커어 축제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교회들도 앞다투어 반동성애를 외치며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한국 교회도 동성애 문제에 있어 미국 주류 개신교회와 유사한 신앙 배경을 갖는 교단들은 미국과 같이 동성애를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웃 사람이라는 명제 하에 동성애에 다소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복음주의 신앙 배경을 갖는 교회들은 동성애 문제에 있어 강한 반대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감을 갖고 동성애자들과 감정적 갈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좀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과의 감정적 대립과 갈등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도리어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는 비난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신교		
	주류 개신교회	복음주의 개신교회
교단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 장로교회, 그리스도 연합교회, 성공회	남침례교회 총회, 루터교 미조리 총회 등
교인수	26,344,933	39,930,869
성서관	성서는 역사적 문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매 시대마다 해석이 필요	성서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는 그 자체로 최고의 해석자
하나님	세상일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멀리 있는 하나님'	세계의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심판을 주시는 '권위의 하나님'
구원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지만, 타 종교와 비기독교인도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신앙노선	사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 및 인권과 평등	개인의 회심과 중생 구원과 복음 전파

광복 70주년

# 경 제18회 경축 성가찬양제 개최

축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든 교회와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온 교우들의 가정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남가주 중부 교회협의회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가주 중부 지역 모든 교회와 성도님을 모시고, 제18회 광복 70주년 경축 성가찬양제를 갖고자 합니다. 중부 지역에 소속된 모든 교회가 기쁨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에 온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1. 일 시 :** 2015년 8월 16일(주일) 오후 4시  
**2. 장 소 :**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담임 방상용 목사)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Tel.(562)402-2919  
**3. 문 의 :** 최국현 목사 Tel.(714)351-0124

**<참가하는 교회와 단체>**  
 실버합창단, 은혜찬양율동선교단, 오랜지선교합창단, 라팔마연합감리교회 시온성가대, 감사한인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카이로스 Worship Dancing,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성가대 등

**<임원>**  
 회장 심명구 목사  
 부회장 전동은 목사  
 부회장 현에스더 목사  
 총무 최국현 목사  
 회계 김순옥 목사

**<중경회장>**  
 김대순 목사    황보연준 목사    조영계 목사    이경환 목사    김영길 목사    김상구 목사  
 황천영 목사    노대원 목사    조창훈 목사    남창대 목사    오병익 목사    김진광 목사  
 이상복 목사    민준기 목사    손태환 목사    석태운 목사    박철웅 목사    장재원 목사  
 김영대 목사    김중현 목사    안동주 목사    이동준 목사    용장영 목사   곽소건 목사  
 허귀암 목사

남가주 중부 교회협의회 회장 심명구 목사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성령이 답이다

서천석 | 베다니출판사 | 341쪽

저자는 무기력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의 해결책으로 '성령'을 제시한다. 저자도 한때 이런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을 받고, 살아 있는 말씀과 성령충만의 역사로 교회 공동체가 힘 있게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한다. 성령충만을 개인의 차원이 아닌, 세계복음화와 선교에 연결시켜 하나님나라 확장을 강조한다.



#### 슬픈 망고

윤춘식 | 예영 | 256쪽

제목 '슬픈 망고'는 카리브와 남미에 대한 축약된 표현이기도 하다. 이는 여행객이 아닌 그 사회 속에서 진하게 경험해야만 잡힐 수 있는 아픈 현실이다. 이 시집에서 저자는 힘겹게 살고 있는 인디언 부족들을 바라보는 애뜻한 시선을 보여준다.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로 만나고, 나아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과 공유한다. 저자는 시를 한 편의 작은 성육신이라고 말한다.



#### 강력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라

E. M. 바운즈 | 브니엘 | 240쪽

고전 '기도의 능력'으로 잘 알려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전하는 '강력한 기도' 이야기. 저자는 기도는 사람의 태도와 관련, 기도는 삶의 일부만이 아닌 자신의 모든 존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이 강력한 기도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한다고 강조한다.



#### 아프리카의 작은 천국 레소토

김역수 | 밀알서원 | 192쪽

아프리카 남단의 작은 왕국 레소토에, 미국 보스턴대와 고든 콘웰신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저자가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현지로 들어갔던 선교일기. 생활비와 교육비, 후원금 등 실질적인 선교 이야기부터 언어와 인성, 영성과 문화 등을 준비하고, 과거 우월주의적 선교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21세기 선교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제안도 있다.



## REVIEW

# 과연 우리는 '정말로' 변화되고 있는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독서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배우면 똑똑해진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착하게 살면 그리스도인다워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다 보면 이 전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된다.”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대표적인 신념들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먼저 당신은 과연 '정말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그러한지 명확히 자가진단을 해낼 수 있는가? 대다수가 '이들은 아마 더욱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왜 답이 없고 왜 변화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지 답답해하

지만, 사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 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전도와 선교, 헌신 등에 대해서는 수없이 강조해 왔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제대로 생각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아무 생각 없는 '무개념, 무분별' 교인을 양산해 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티기독교 현상 속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책은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적 사고방식이란 과연 무엇인지 파헤친다. 그리고 왜



나는 왜 아무 생각이 없을까? 우성환 | 예수전도단 | 208쪽

인간의 인식이 망가지게 되었는지,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흥미로우면서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그럴듯하게 끼워 넣은 자기계발식의 방법론을 해결책으로 내놓는 대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 고체계의 본질과 원리를 일상의 언어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다. 그럼으로써 독자들 스스로 성경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를 위한 결단과 훈련을 시작하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단 한 문단도 결코 무겁거나 딱딱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젊은이들로만 구성된 교회의 담임목사인 저자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 청년들과 '백퍼' 소통 가능한 저자의 열린 마인드와 재치 있는 입담, 그러면서도 그 속

에 속속들이 녹아 있는 결코 뻔하지 않은 통찰력 덕분일 것이다.

이제는 노답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느끼는가? 잘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한번 살아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생각하며 사는 길'로 접어든 것을 환영한다.

이 책은 대학생에서부터 직장생활 3~4년 차에 이르는 청장년,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성도, 바쁜 가운데도 자기 성찰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삼십대, 혼란스럽고 답답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추천한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리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251면 / 10,000원

# 평화의 꽃씨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쿰란출판사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 日 최대 교회 목회자, 한국 성도 위한 설교집 펴내

오오카와 츠쿠미치 목사의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성도 천 명이 넘는 대형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야마토갈보리체플 오오카와 츠쿠미치 목사가 최근 한국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설교를 모아 만든 '하나님, 다녀왔습니다(두란노)'를 펴내 주목받고 있다.

추천사를 쓴 무라카미 노부미치 목사(사카그리스도교회 협력목사, 오차노미즈 크리스천센터 이사장)는 이 설교집에 대해 "Scripture, Spirituality, Service, Simplicity, Sensibility, Sensational, Satisfaction 7가지 'S'가 있다"며 "부디 이를 읽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할렐루야교회 원로 김상복 목사는 "일본 야마토갈보리교회의 오오카와 목사는 일본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미래 모형을 제시해 주는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일본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야마토갈보리교회의 오오카와 목사의 설교를 한국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는 "오오카와 목사의 설교집



복음을 자랑하라 오오카와 츠쿠미치 두란노 | 216쪽

을 출판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오카와 목사님이야말로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비결인 메시지에 오랜 세월 생명을 불어넣어 오셨기 때문"이라며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반드시 꿈과 희망, 믿음을 얻고, 나아가 천국에서의 복은 물론 이 땅에서도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바"라고 전했다.

오오카와 목사는 1942년 도쿄에서 태어나 세이카쿠인고등학교와 도쿄성서학원, 아오야마학원대학 신학부를 졸업했다. 오쿠교회, 카메아리교회, 후카가와교회, 샌프란시

스코교회를 거쳐 1970년 자마그리스도교회 담임목사가 되었다. 1992년 야마토시로 이전하여 2000년에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손꼽힐 만한 큰 예배당을 헌당했다. 국내외에도 20개의 지교회를 설립했다. 현재 야마토갈보리교회 담임목사이자 갈보리성서학원 학원장과 인터내셔널 갈보리아카데미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님의 지우개'(이노치노고토바사), '불성실한 목사의 유머집'(아사히신문사), '바'보의 벽을 넘는 것'(학문관) 등 다수의 저술서가 있다.

강성현 기자



오오카와 츠쿠미치 목사

## 소강석 목사의 '꽃씨 심는 남자'

어떤 고난도 쓰러뜨릴 수 없는 용기와 희망 심으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샘터 | 336쪽

"요즘 세상을 보면 '에덴의 동쪽' 처럼 얼마나 서로 물고 뜯으며 상처를 주는지, 마음과 증오의 가시덤불로 가득하다. 절망과 탄식, 분노와 반목의 폐허 위에 사랑과 화목의 꽃씨를 뿌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소강석 목사는 '꽃씨 심는 남자'이고 싶다고 말한다. 그의 대표시이자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는 작품도 '꽃씨'이고, 칼럼 명도 '꽃씨'이다. 시대가 삭막해질수록 더 꽃씨를 뿌리고 가꾸며, 정원이나 조그마한 텃밭도 꽃씨를 심어 놓으면 메마른 우리 마음에도 향기로운 꽃이 핀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원에 뿌리는 꽃씨라고 말한다. 좌절하고 슬픔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향우울제 같은 위로나 현실 순응적 힐링을 주기보다, 가슴에서 움트볼 수 있는 희망의 꽃씨를 뿌리자는 것이다.

그의 이번 에세이집은 '꿈에도 상처가 있다', '상처에도 향기가 있다', '다시, 첫 새벽길을 기다리며', '황무지일수록 꽃씨를 뿌려라' 등 4부로 구성돼 있으며, 소 목사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회심 이야기, 목회 단상 등을 길지 않은 호흡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히 4부에서는 '이인인의 만두는 틀렸다', '찢질방에서 잠든 떠돌이별을 보셨나요'를 비롯해, 지난 해부터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에 연재돼 화제를 모았던 칼럼들이 수록돼 있다.

소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고난도 쓰러뜨릴 수 없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책을 엮었다고 말한다. "나도 똑같은 인간이며, 상처받고 힘들 때가 많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 한 번 절망을 딛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포기 대신 도전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부디 미지근한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더욱 좋겠다."

책을 통해 자신의 '설교 스타일'을 소개하기도 한다.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가 말했던, 세속의 언어와 영성의 언어 중간 지점에 다리를 놓는 '문지방 언어'를 자신의 설교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앙은 현실 속에서 적용되고 성취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고 피상적이지 않느냐는 진단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과 밀착하지 않은 양반 언어나 교리적 언어로만 설교한다면, 결코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시킬 수 없다."

'야생마 같고 길들여지지 않은 문지방 언어'를 쓰는 이유는, 현대인들의 걸치레와 위선을 영성으로 깨우고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는 사상의 집이고 존재의 집이다. 언어에는 혼과 영성이 담겨 있다. 저질 언어는 쓰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고급 언어를 쓴다 해서 소통과 감동을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 그래서 가끔은 의도적으로 '문지방 언어'를 구사하고, 때로는 아주 아슬아슬한 '시장 언어'를 쓴다. 그러나 경계를 넘지 않고 바로 돌아온다고 한다.

오늘도 세속의 세계를 향해, 영성의 세계를 소개하기 위하여 언어의 문지방을 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세속과 영성의 경계에 놓인 퓨전적 소통과 공감의 수단인 '문지방 언어'라는 소강석 목사에 대해, 그 원조인 이어령 교수는 다음과 같이 찬평했다. "그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피투성이가 된 조국을 가슴에 부여안고 성루에 홀로 앉아 울부짖었던 것처럼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을 품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거친 폭풍에 맞서 달려가고 있다."

이번 에세이집이 허공에서 맴돌다 사라져 버리는 외침이 아닌, 한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꽃씨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다! 수많은 꽃씨가 날고 날아 여기저기 꽃밭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대용 기자

##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대한 '부끄러움'

살아서는 삶을, 죽어서는 신앙의 유산을 통해 자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김진성 TnD북스 | 224쪽

민수기 4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즉 레위인의 직분과 자격 요건을 기록하는데, 47절에는 연령대가 규정돼 있다. '삼십 세부터 오십 세까지'.

"인생 여정 중에 가장 좋은 시기,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능력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니. 날 좀 도와 주거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맹이를 들어서도, 짐승을 들어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

시는 이유는, 실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회와 특권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첫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쓰다 남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다 미처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주면서, 저자는 50세에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자신을 누우치고 회개한다.

육사 졸업 후 군생활을 하던 저자는 1991년 회심했고, 2000년 유엔평화유지군으로 동티모르에서 근무하던 중 목사로 소명을 받고 예편 후 뒤늦게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물론 구약의 나이를 수치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힘 있을 때 어디가 있다가 힘이 다 빠지고 나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온 것을 그냥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라'는 1년 전 나온 마가복음 설교집 '너는 내 것이라'에 이어, 저자의 '디사이플십(Discipleship) 시리즈' 두 번째 책이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부터 마태·마가복음

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자랑하는 삶,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주제의 설교들 11편을 묶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대한 '부끄러움'이 담겨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설교에서는 좀처럼 예화를 찾을 수 없다. '예화'도 성경 말씀 그 자체에서, 주석과 적용까지도 말씀 안에서 건져낸다.

야곱과 요셉,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삶을 통해 증거하고, 죽어서는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증거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성도는 모두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은 성도가 모르고 지나가거나 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흔히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자들만이 소명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적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대용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약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 대리점 모집

#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냄세제,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세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세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세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독】**  
밥 지을 때 밥독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량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금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감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금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현 FDA임상 2차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er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완료,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신체화자, 제막), 만수무답 인쇄 전문  
주님미디어닷컴은 온라인으로 주문하신 상품에 대해 빠른 배송을 보장합니다. 모든 상품에 대해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도용품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 드립니다.  
2. 전도용 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제각종 및 방문지 선물을 진행, **실고시디앨범**

전도용 물티슈 1,000set (\$180)  
고급종이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 시디  
각종 행사용 및 전도용품, 각종 용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에도 활용하실 수 있으며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전도용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1, 101 Los Angeles, CA 90057

##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이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축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틈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01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 Looking Beyond the Model, Focusing on the Purpose and Relationship

BY RACHAEL LEE

Amidst all the talk of what the best "model" for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uld be, one of the most favored models among the Korean American pastors is that of an English ministry (EM) budding off into an independent church.

But on the KM (Korean ministry)'s side, the idea of sending the EM off into independence may bring about some fears. What happens to the kids in elementary to high school – who will teach them about God in English? Won't our numbers shrink? Wouldn't this be kind of like a church split?

Two members of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YNCC)—Yana Ahn, the missions pastor at YNCC, and Kyung Ho Hong, an elder and executive director at YNCC—who have been at Young Nak since the beginnings of the English ministry at the mother church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YNPC), and Reverend Michael Lee, the senior pastor of YNCC, shared their thoughts on the independent church model. There are several things an EM pastor looking into independence should consider, they said, especially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le fears that the KM may have about the idea.

In YNCC's case, though the church is legally independent, perhaps a more accurate word to describe its relationship with YNPC is "interdependence." YNCC now has two campuses, but one of its campuses is still shared with YNPC; the education department is still shared by the two churches; and they also do outreach events together, including Love L.A., a weekly outreach event in Skid Row.

In fact, YNCC made it a point to emphasize its commitment to maintaining its relationship with YNPC even after legal independence by writing a memorandum at the time of YNCC's independence. The memorandum indicated the missional vision behind the EM's independence, and the EM's "desire to coexist" with the mother church, in the words of Yana Ahn. This interdependent relationship came from the relationship

that the KM and EM built through engaging in ministry together while they were still – on legal terms – one church.

"When [YNPC first] moved to the Broadway site, some Korean deacons went to Skid Row and started passing out hamburgers – that was all they could do with their limited English," Ahn elaborated. "One day, some of the young members tagged along, and they were able to talk to the people in Skid Row and build relationships. So when KM and EM combined efforts like this, we saw so much growth, and we saw how clearly we needed each other. Young people saw the dedication of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older generation saw the need and desire to do ministry with the younger gen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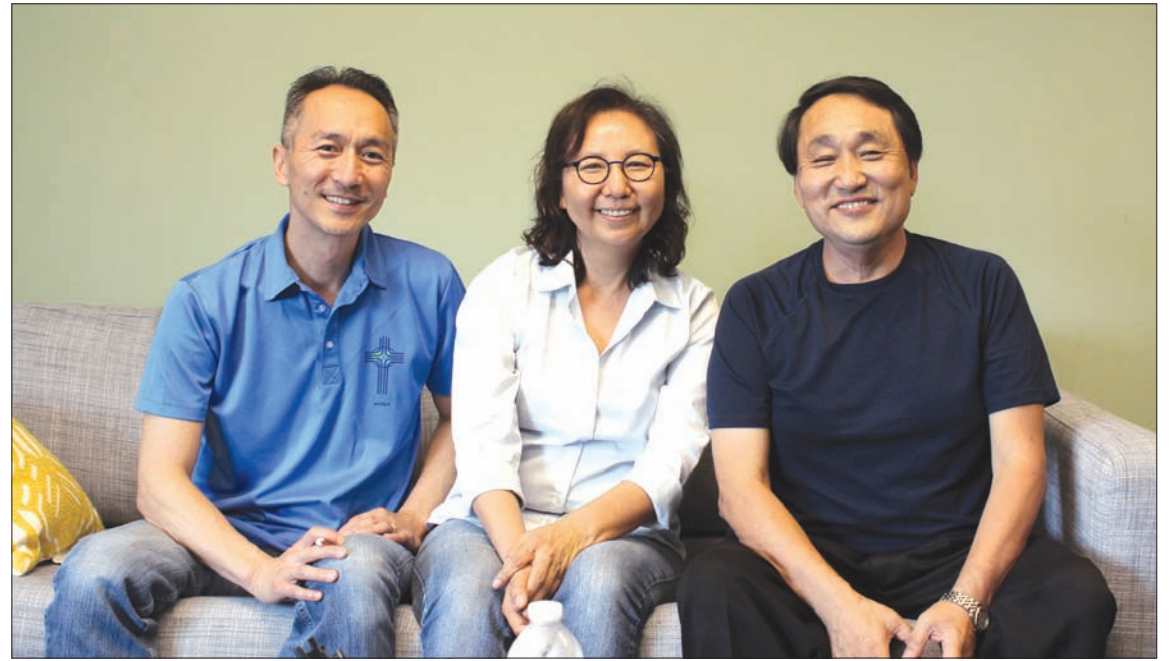
The KM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helping the EM transition into independence. The KM session invited EM to their session meetings, and KM elders became a part of the EM leadership to train and guide them in leading a congregation.

**"Why do I want independence?  
Is it because I want this congregation to grow more and reach more?"**

"We had our own leadership called the EMC – the English Ministry Council," said Hong. "At the time, EMC comprised of members mostly in their late twenties or thirties. So they even changed the bylaws and got special permission from our denomination to elect deacons at that age, because some of our EMC members were too young."

The KM also trained the EM by giving them autonomy in handling their own finances and hiring their own pastors. Eventually, the EM was also given their own building when YNPC moved into its current Broadway location.

"We had to learn how to set up the worship center; we had to have our own community sacrament



Rev. Michael Lee (left), Pastor Yana Ahn (center), and Elder Kyung Ho Hong (right) of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shared their thoughts on the independent church model.

equipment; etc. – it was a huge learning curve," Ahn said of the experience of first moving in to their own building. "In the beginning, we were short of elders too so the KM elders came and helped us to do communion."

Through such a relationship, the EM's desire to continue coexisting with the mother church came "as an automatic response," Ahn said.

"KM first cared for and loved EM," she said. "We never felt the KM was meddling or taking our money away. They really did care for us and think about the next generation."

This support from the KM is a unique aspect in YNCC's journey to independence, said Lee.

"Not only did the KM senior pastor have the vision behind it, but through these ways, the KM said, 'Let us come alongside you and help you in this,'" Lee said.

Though in YNCC's case, the vision for independence came from and was supported by the KM senior pastor, this is not the case for many, if not most, EM pastors. Ahn, Hong, and Lee all encouraged EM pastors considering independence to first focus on the relationship with KM.

"Think of ways you can create a ministry space where you realize the need for interdependence [between the Korean and English

congregations] and the value of that relationship," Ahn advised, referring to the way YNCC and YNPC still do outreach together.

"It's hard to convince someone of something so substantial," Lee said. "Try to have a shared vision with the KM senior pastor. Be the channel through which God reveals the vision [of independence] to him."

Ahn and Hong also advised pastors to first consider their intentions behind wanting independence, and whether they are truly ready for it.

"They need to examine, 'Why do I want independence? Is it because I want this congregation to grow more and reach more?' Because I think the reason we wanted independence was all missional – we saw the benefit of being together to build His kingdom," said Ahn.

"For some EMs, there is no way they can be financially independent," Hong said.

"If you want to be independent for the right reasons like Yana said, you need to get yourself ready," Hong continued. "You need to be responsible, and if you're doing your ministry well, then KM will give you independence if it is needed. EM has to do their part and they have to be able to be independent first."

Lee added that thinking of how

the relationship would look in the long run is also important.

"What woul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and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s look like long term? What would the education department look like? And the long-term changes in leadership – what would that look like? How would this relationship continue on into the future even when the initial visionaries for it are gone?" Lee posed.

To keep the initial vision as a part of the DNA of both the Korean and English speaking churches, Hong advised pastors to have something like YNCC's memorandum, and even putting that memorandum in the bylaws of the church as a memory. YNCC itself is considering how they could best preserve and commemorate its history and relationship with YNPC.

"A lot of our elders are already gone or retired in the EM side, and a bunch of us are going to retire," Hong said. "It would be good to have a history and an understanding of how this church came about, and keep the memory of this relationship alive."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Three Essential Aspects of Faith:**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located in Brea, CA, is spending this summer sharpening up on the essential aspects of faith. Three classes taught by the church's own pastors and elders are being offered over a four-week period, which began on July 24: "The Gospel," "Bible Survey," and "Theology." Some 150 members -- and even some people from outside of the church -- registered for classes. To read the full article, visit our website: christianitydaily.com.

## Rev. Hyeon Soo Lim Admits to Crime Allegations at Press Conference; Likely Faced Pressure from NK Government

BY RACHAEL LEE

Reverend Hyeon Soo Lim, a Korean Canadian pastor who has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after his last visit to Pyongyang on January 31, was reported to have admitted to allegations of attempts to overthr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t a press conference held in Pyongyang, according to KCNA, North Korea's state news agency.

However, it is likely that Lim faced pressure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s the language he used in the Pyongyang press conference includes words and phrases distinct to the North Korean language.

"My most serious crime is that I critically insulted the great majesty of the People's Republic, and that I conspired to overthrow the government," said Lim, who is known to have built noodle factories, donated winter clothes to orphans in North Korea, and is often called the 'godfather of North Korean missions.'

He added that he tried to establish a religious state during his numerous visits to the country (he is known to have visited North Korea more than 100 times), and that he criticiz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his 'ministry reports' at churches in his 'ministry reports' at churches in Canada, the U.S., Japan, Brazil, and South Korea.

Lim said he entered North Korea on January 30 for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nd that he violated the required quarantine to check for the Ebola virus in entering Pyongyang on February 2. He said he was caught by North Korean officials on the night of the 2nd, and was placed in isolation for 21 days. An official investigation into his crimes began on February 24, he said at the press conference.

"We believe that [Lim]'s compassion towards others remains the same, and we simply hope that he will return as soon as possible," said Light Presbyterian Church in a statement. "We ask for your continued prayers and support."

## Non-Discrimination Bill Introduced in Congress May Affect Religious Freedom, Opponents Say

BY RACHAEL LEE

A bill that would amend the 1964 Civil Rights Act (CRA) to includ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s protected classes was introduced in Congress on Thursday.

The bill, called the Equality Act, was introduced by Senators Jeff Merkley, Tammy Baldwin, and Cory Booker in the Senate and by Representative David Cicilline in the House, and was backed by 203 more Democrats.

It protects LGBT from being discriminated in public accommodations, education, federal funding, employment, and housing, among others, the same way tha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and religion in these areas are prohibited under the CRA. The bill also requires the admittance of individuals according to their gender identity in "sex-segregated facilities," such as public restrooms, rather than according to their biological sex.

The introduction of the bill comes after attempts to pass the 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 (ENDA)—a bill that would have set in place non-discrimination policies in employment—have failed in every Congress since 1994.

However, while the ENDA was a bill specific to the context of employment, the Equality Act is a more far-reaching bill that goes beyond employment, and is involved with almost every sector of society.

"Every person deserves to live free from fear of discrimination, regardless of who they are or whom they love," said Merkley.

Opponents criticize the bill's implications for religious liberty. The proposed bill does have religious exemptions mentioned in the employment section, saying that it allows "religious corporations, associa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ocieties to hire only individuals of a particular religion to perform work connected with their religious activities."

However, the bill also has a portion that states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 cannot "be used as a defense for individuals or entities to discriminate on any basis." This means individuals would not be able to cite their religious beliefs as a basis for refusing services to same-sex couples, for example, just as one would not be able to cite religious reasons for refusing services to someone for his or her race. Republicans are likely to express strong opposition on this portion.

"Were this bill to become law, traditional Christian, Jewish, and Muslim sexual morality would immediately be treated as suspect and contrary to federal law," argued Andrew Walker of the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any believe the likelihood of the bill being passed is low, considering the current Republican majority in Congress. No Republicans have co-sponsored the bill.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